

혼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

-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 -



혼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

-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 -

차례

전시소개	5
Ⅰ. 해방과 분단을 기록하다.	15
1. 해방의 감격	
2. 점령자 미국과 소련	
3. 분단과 좌우갈등	
Ⅱ. 남과 북의 영화를 일구다.	51
1. 대한영화사의 안석영과 안종화	
2. 국립영화촬영소의 주인규, 추민, 강홍식, 심영	
3.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 그 후	
4. 오영진과 주영섭 그리고 박학	
Ⅲ. 분단의 아픔, 영화는 계속되다.	79
1. 남북으로 나뉜 영화인들	
2. 여배우 트로이카의 운명의 행로	
3. 신진 영화인들의 등장	
해방기 영화 제작 현황과 발굴 영화 소개	103
조소연[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터]	
해방 전후 한국영화사의 복원과 북한영화라는 문제	119
한상언[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전시 소개

해방의 찰라 같은 시간동안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고 그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뜨거운 외침은 혼란의 시간을 예고한다. 관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과 긴박의 상태에서 갈피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이것은 해방이 가져온 부산물이다.

1945년, 일제가 팽팽히 움켜 쥔 고삐의 힘을 풀자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은 사방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자리를 맴돌았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몰랐던 이들은 여러 갈래로 난 길 위에 서서 선택을 고민했다. 어떤 이는 신념에 차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향해 달려 나갔고 다른 이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눈에 담아가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는 누군가의 강요로 먼 길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길로 뚝뚝뚝 걸어가기도 했다.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길을 향해 간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을 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역사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영화인들의 엇갈린 행로를 통해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와 한국전쟁이 가져온 민족적 비극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앞선 자들이 남긴 뽕양개 인 먼지 틈으로 세상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간이 열린다. 아쉬운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든 반목과 적대의 감정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헤어졌든 이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이들을 직시할 때이다.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조소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터]

진과 주영삼 그리고 박학

박학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진과 주영삼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박학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진과 주영삼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박학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진과 주영삼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박학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말동규의 <마음의 고향>, 그 후

말동규의 <마음의 고향>은 1940년대 후반에 제작된 영화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국립영화촬영소의 주영규, 주만, 강동식, 심영

국립영화촬영소의 주영규, 주만, 강동식, 심영은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대한영화사와 북조선국립영

대한영화사의 반석영화와 만화영화

대한영화사의 반석영화와 만화영화는 1940년대 후반에 제작된 영화로, 진과 주영삼의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점령자 미국과 소련

극장을 점령한 미·소 영화

조선을 식민지배에서 독립시켜 준 이들 해방의 은인은 어느 틈에 한반도의 새로운 점령자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은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이식되었다. 마찬가지로 소련군은 점령 초기부터 김일성을 앞세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영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시각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도구였다. 미군과 함께 들어온 할리우드 영화는 중요로운 미국생활과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 보여주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소련영화 역시 소련군을 통해 일반에 상영되었다. 이들 소련영화는 북한영화가 참조해야 할 교재이자 북한지역민들에게는 사회주의 체제를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수단이었다.



지식인들의 기행문

냉전이 본격화되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했다. 미국과 소련은 정책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식인들을 미국과 소련으로 초청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체제의 우월함을 강조하여 보여주었다. 미국과 소련을 방문했던 지식인들의 경험담은 책으로 묶여져 체제 대결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안철영과 이병일, 오영진, 박인환 등의 미국 기행문에는 할리우드의 경험과 미국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겼으며 소련을 방문한 리찬과 한설아의 기행문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더불어 소련 각지의 촬영소 방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解歌仙伝説
文藝海
21
文藝海
21
文藝海
21



본단의 이름, 영화는 계속!

남북으로 나뉜 영화인

문단과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영화인들을
흔들었다. 김홍도와 김홍도(부자) 김인규와
이동우와 이영우(형제) 문희배와 문정숙(부
자) 김학성(남매) 등이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
게어진 가족과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김세
영화인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

— 혼인
⊗ 이혼
--- 혈연

Text on the leftmost page, likely a preface or introduction, written in vertical columns.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of text, possibly a schedule or a list of items. The title at the top is **綜合藝新祭** (Comprehensive New Art Festival).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전통공예 2008 전통공예대전 (2008.12.12)

1. 해방과 분단을 기록하다.

해방이 되자 조선영화사에 소속되었던 영화인들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만세 소리 가득한 서울 시내의 모습은 물론 소련군이 점령한 38선 이북 지역까지 필름에 담았다.

해방의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분단이라는 현실은 보다 또렷해졌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은 체제 대결과 좌우 갈등의 씨앗이었다. 미국과 소련을 체험하고 온 지식인들의 기행문은 체제 우위의 증거물로 활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영화는 체제 대결을 시각화하는 도구였다.

해방 직후의 민족적 염원이던 민족국가 수립은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으로 더욱 요원해져 갔다. 미소공동위원회의 파행과 이어진 단독정부 수립으로 분단은 고착되었고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이루어진 남북연석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한반도는 친공과 반공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국제적 차원의 냉전은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1-1. 해방의 감격

해방뉴-쓰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흥분과 감격이 거리에 넘실거렸다. 일제의 국책영화회사인 조선영화사에 소속된 영화인들은 해방된 조국의 민족국가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조선영화사를 조선영화건설본부로 재편하고 임화와 김남천이 주도하고 있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단체로써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 영화인들의 가시적인 성과는 해방 직후의 역사적 사건들을 필름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방뉴스>는 북한 지역까지 포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상영되었다.

해방 뉴-쓰 특보

- 전국 특산물 전람회 개장식
- 8.15 1주년 기념식 축하 행진과 군정청 앞 기념식 이승만, 김구 연설, 대한독립만세 삼창
- 대구와 부산의 8.15 기념 평화 행진
- 대구 총령탑 폭파
- 조선대표팀과 미 24군의 야구대회



해방 뉴-쓰 특2호

- 서울소방서 분열식
- 우리 농촌 생활 소개
- 수해 방지를 위한 식목, 사방공사



해방 뉴-쓰 특3호

- 군정장관 주최 내외신문기자 초대
- 육군사관학교 제1회 졸업식
- 한글기념 경축 보이스카웃 운동회
- 한글 오백년 기념식
- 김구 총리 지방 순찰



해방 뉴-쓰 00호

- 좌우합작회담(1946.10.7). 김규식 박사 회담 결정 발표, 하지 중장 특별 성명 발표
- 제1회 전국 도시 대항 야구대회



1946년 민중영화제작주식회사 제작 <해방 뉴-쓰> 4편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시보 제1호 (공보부 제작) ※ 사운드 유실

- 경복궁에 태극기 게양(1946.1.14.)
- 페터슨 미육군장관 서울 방문
-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개최(1946.1.16.)
- 건물 화재
- 비상국민회 개최
- 조선국방경비대 신규 편제
- 친일파 김계조 재판
- 조선경찰학교 시가행진(1946.2.7.)



시보 제2호 (공보부 제작) ※ 사운드 유실

- 남조선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성립식(1946.2.14)
-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김규식 등 참석



시보 제5호 (공보부 제작) ※ 사운드 유실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개최(1946.3.20.)
- 38선 우편물 교환



시보 특보 (공보부 제작)

- 남조선 입법의원개원식
- 과도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연설, 하지 중장 연설

1946년 미 공보부 제작 <시보> 4편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조선영화동맹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은 일제에 의해 해산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을 부활시켰다. 추민을 비롯한 소장영화인들은 카프 산하 조선프로레타리아영화동맹을 조직하였다. 좌익의 문화단체 통합의 움직임 속에 조선영화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 영화동맹은 범영화인조직인 조선영화동맹으로 발전했다.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전단

임화, 김남천이 주도하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은 프롤레타리아문학 건설을 강령으로 삼으며 보다 진보적 노선을 표방했다. 영화인으로는 윤기정, 김승구, 김태진 등이 참여하였다.

↓ 소장 임동섭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전단(복제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해방 직후 임화(의장), 김남천(서기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문학예술단체이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영화건설본부에는 중앙위원장 이재명, 중앙위원으로 김정혁, 김한, 방한준, 성동호, 윤상렬, 이명우, 이병일 등이 참여하였다.

↓ 소장 한상언영화연구소

<자유만세>와 <내 고향>

해방의 기억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 공동의 경험으로 역사화 되었다. 해방 1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자유만세>(최인규, 1946)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대중과 공명하는 계기였다. 북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1주년을 맞아 항일운동과 북한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소재로 한 <내 고향>(강홍식, 1949)을 만들었다. 이 영화는 북한 최초의 극영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자유만세>(1946) 포스터

최인규(연출), 한형모(촬영), 전창근, 독은기, 유계선, 황려희, 김승호, 복혜숙, 한은진, 하연남, 윤봉춘, 강계식, 전택이 등(이상 출연)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자유만세>(최인규, 1946) 영화장면



<내 고향>(강홍식, 1949) 촬영현장 사진

강홍식(연출), 김승구(각본), 유원준, 유경애, 문예봉, 문정복, 박학 등(이상 출연)



<내 고향>(강홍식, 1949) 영화장면

1-2. 점령자 미국과 소련

극장을 점령한 미·소 영화

조선을 식민지배에서 독립시켜 준 이들 해방의 은인은 어느 틈에 한반도의 새로운 점령자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은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이식되었다. 마찬가지로 소련군은 점령 초기부터 김일성을 앞세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영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시각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도구였다. 미군과 함께 들어온 할리우드 영화는 풍요로운 미국생활과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 보여주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소련영화 역시 소련군을 통해 일반에 상영되었다. 이들 소련영화는 북한영화가 참조해야 할 교재이자 북한지역민들에게는 사회주의 체제를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수단이었다.



『영화대본 2』, 문화선전성 영화관리국, 1952.

6·25 전쟁 중 북한에서 발행한 시나리오집이다. 이 책에는 <맹세>, <불타는 날개>, <목동과 처녀>, <꼬리지촌의 빛> 등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네 편의 소련 영화 시나리오가 실려 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엘바강의 해후>(그리고리 알렉산드로브, 1949)
영화장면

소련에서 제작한 조선어 더빙판이 북한에서 상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복사한 북한 영상물에서 발견되었다. 연합군으로 함께 독일군을 몰아낸 미군과 소련군은 알바강을 사이에 두고 진주한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잠시, 미군과 소련의 미묘한 관계와 상이한 입장 차가 대비되어 그려진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모스크바에서 본 映畫 몇 가지

韓 雪 野

모스크바 滞在中 지난 五月十六日 나는 조선作家 김·로만·니콜라예비
스동무의 談話를 받았다 조선映畫省에서 關係로 보내는 조선映畫에 대해서
간담하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곧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밤은 마침
소프라노로 演劇 「모스크바의 스키·하락셀」 (모스크바性格) 을 보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다음날밤에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十七日午後 여섯시에 나는 로만 경과 함께 映畫省으로 갔다. 輸出
局長外 몇몇 關係자들이 다복을 데려와 놓고 반가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조선映畫를 우리 나라로 보내주는 것과 그映畫국이 朝鮮人民들에게 주는
文化的 影響에 대하여 映畫省과 그關係기관들에게 대하여 感謝의 뜻을 표하였다. 실상
이날밤에 나를 만나자고 한 것도 이事務를 면담하기 위해서였다. 그
들은 바쁜 가운데 와주어서 고맙다고 나에게서 치하했으나 실상 고마운 인사
를 보여줄 바랄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主로 朝鮮語字幕에 대해서 意見을 交換하였다. 字幕에 있어서 무
엇보다 重要な 것은 觀衆의 要素인데 데리로 字幕과 字幕의 鮮明의 못하고 甚
한 것은 記憶적일지도 있는 데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그것을 고칠 데에 대하여 말하였
다. 그다음 用語와 文體가 正確히야 또는 작부리가 많은 것과 簡潔하지 못하고
冗長한 것이 지적받은 데 대하여 말하였다. 결국 이러한 建議들을 일제대인
朝鮮人專門家가 要求하는 데 그대 建議들이 있어서 當局자들은 苦心하고 있었다.
나는 映畫省에서 좋은 方法을 찾기에 努力하고 있는 그 苦衷을 짐작하고 아
예와 같은 몇가지 意見을 제출해 주었다.

첫째 朝鮮에 留學하는 朝鮮學生들로서 朝鮮語字幕을, 만일 것. 이것은 勿論
可能한 일이다. 現在 中國留學生들로서 中國語 發聲版을 한판고 있는데 이것은 限
期以上の 成功을 보이고 있다.

둘째 發聲版을 만들수 없는 映畫에 대하여는 解説版 即 朝鮮語解説版을 만
들것. 이것도 勿論 可能하다 解説版 方案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셋째 以上 무가지 方法外에 補助의 意味로 朝鮮語字幕을 붙일 것. 即 發聲版
과 解説版을 主로 하고 이것들을 만들수 없는 경우에만 發聲 字幕의 字幕版
을 보내줄 것을 말하였다.

조선의 좋은 映畫들을 보는데 있어서 字幕읽기에 많은 困難을 입는 音腔을

우리 觀衆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다. 映畫를 보는 데 있어서 觀覺과 聽覺을
오로지 이에 集中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內容의 우어독인과 그 흐름을 正確
히 포착하게 하려면 첫째 發聲版이요 다음으로 이보다도 不完全하나마 解説
版이, 한개 便宜한 方法으로 되는 것이다.

映畫省에서도 데리로 이에 同意하였으며 今後 이方向으로 努力할 것을 約束
해주었다. ㉔

그다음은 實地로 新作映畫 몇 편을 감상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意見을
交換하기로 하였다. ㉕

먼저 우리는 映畫省特設 映寫室에서 天然色映畫 「미유린」을 구경하였다.
우리는 이映畫에서 生物學者 미유린의 苦難에 찬 그러나 自然에 대한 關
心으로 一貫한 一生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同時에 果樹改良에 있어서의 唯物
論的 革命理論의 適用 即 미유린으로써서 偉대한 革命的理論이 한개의 果
樹에까지 미친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生物分野를 위하여 唯物論의 原則들이 가지는 創造的 革命的意
義를 이映畫에서 分明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미유린의 果樹改良의 單純한 果
樹의 發生學의 見地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實로 偉대한 調停의인 革命理論의 果
樹에의 適用에서 되어진 것임을 이映畫는 보여 주었다. 그러면 서로 그것이 한
개 論理的 說明的인 方法으로서 가가나고 높은 藝術의 形象性을 通하여 表現되어
있는 점에서 이映畫는 바깥映畫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藝術性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되었다. ㉖

映畫省은 朝鮮觀衆들이 이映畫를 眞正로 理解할 수 있을 가하는데 대해서 나에
게 물었다. 나는 그對答으로 이映畫를 곧 朝鮮에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朝鮮人
民은 解放後 文化的으로 많이 成長했을 뿐만 아니라 思想적으로 完滿한지 發展하고
있다는 것을 證明로 말하였다. 即 解放된 民主朝鮮은 日帝가 남긴 惡毒한 結果의
하나인 文盲者들에게까지 文字를 주었음을 본 아니라 바른 思想을 함께 주었다
는 것을 말하였다. 事實 解放朝鮮은 글속에 思想性을 內包시켜서 人民에 주
었고 또 주고 있는 것이다. 輸出局長도 朝鮮이 文化民族인 것과 더욱 解放後 文
化水準이 급격히 向上되었다는 것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매우 滿足해 있었고 이
映畫를 곧 飛行機로 發送할 것을 約束해주었다. ㉗

다음으로 「열바강의相逢」을 보았다. 이映畫는 著名編劇이 監製하면 直前時
期에서부터 시작되니만큼 前半은 多分의 記憶性을 가지고 있으나 戰鬪場面이
나 赤軍과 米軍의 相逢이나 人物들의 設定에 있어서 높은 藝術의 形象性을 보
여 주었으며 그로다도 後半에 있어서는 赤軍과 米軍의 占領地帶에 떨어지는
相異한 現象과 昨日의 同盟軍인 赤軍을 反對하여 敵軍의 後進者로 나서는 米
軍上部의 추악한 모습과 그 中에서도 獨逸의 民主化와 世界平和를 위하여
努力하는 赤軍의 眞相이 높은 藝術的手法에 依어 表現되어 있다. ㉘

이映畫는 實로 千言萬語의 說明보다 더 簡단히 米軍軍隊의 추악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平和와 文化와 人類의 平等幸福을 熱望하는 사람의 魂수로서

지식인들의 기행문

냉전이 본격화되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했다. 미국과 소련은 정책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식인들을 미국과 소련으로 초청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체제의 우월함을 강조하여 보여주었다. 미국과 소련을 방문했던 지식인들의 경험담은 책으로 묶여져 체제 대결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안철영과 이병일, 오영진, 박인환 등의 미국 기행문에는 할리우드의 경험과 미국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겼으며 소련을 방문한 리찬과 한설야의 기행문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더불어 소련 각지의 촬영소 방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련을 방문한 한설야(위에서 두번째 사진 가운데)



안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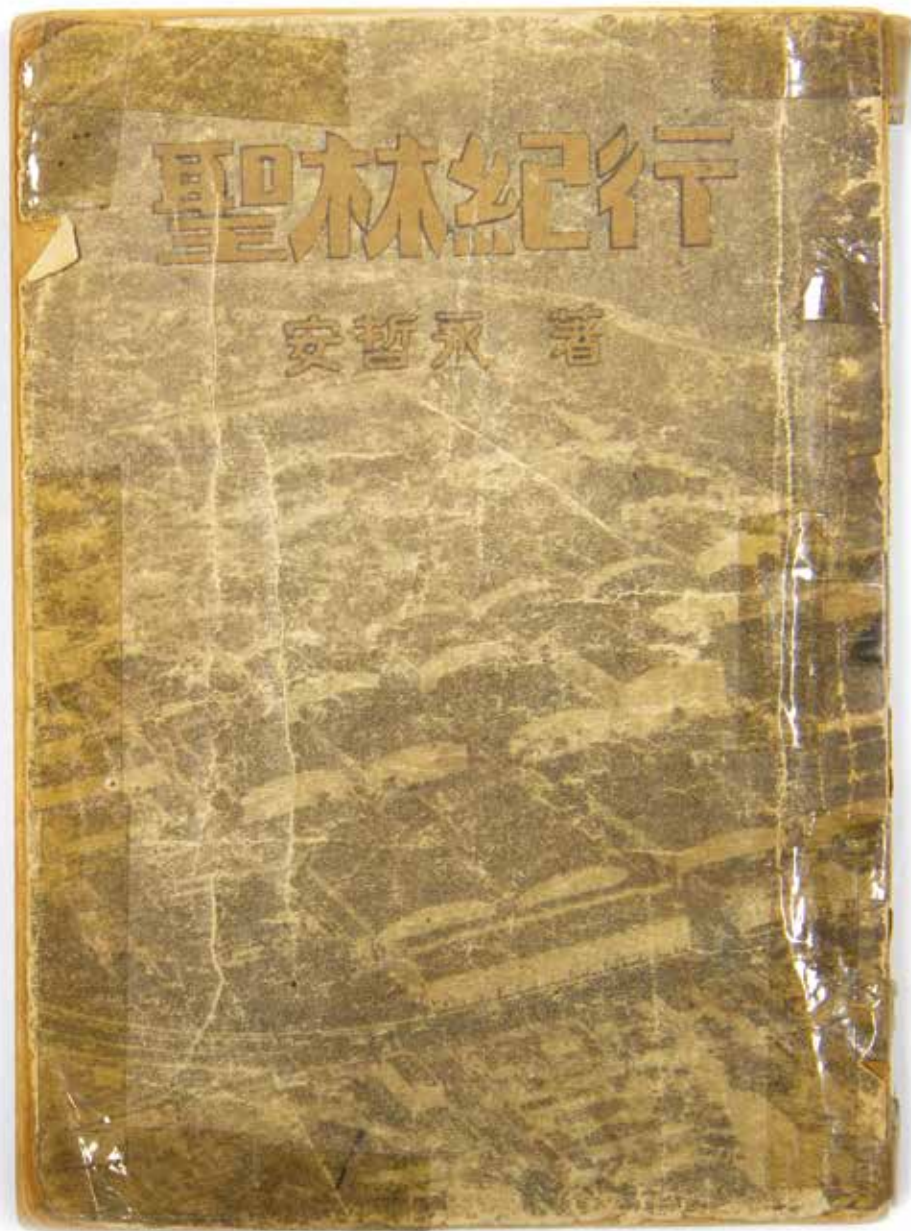
미국 할리우드를 방문한 안철영



<무궁화 동산>(안철영, 1948)

안철영 감독이 1947년 하와이를 거쳐 미국 할리우드를 방문, 시찰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하와이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영화이다. 국내 최초의 컬러 영화로 일본계 미국인에 의해 촬영되었고, 미국에서 현상, 인화되었다.





『성림기행』, 안철영, 수도영화사, 1949.

영화인 안철영의 할리우드 기행기이다. 안철영은 귀국 도중 하와이 교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컬러 영화 <무궁화 동산>을 제작하였다.

| 기증 안형주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레프트리파주 소련 여행기』, 한설야, 교육성, 1948.

1947년 소련을 방문한 한설야의 여행기이다. 한설야의 소련 방문 일정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고리키 영화촬영소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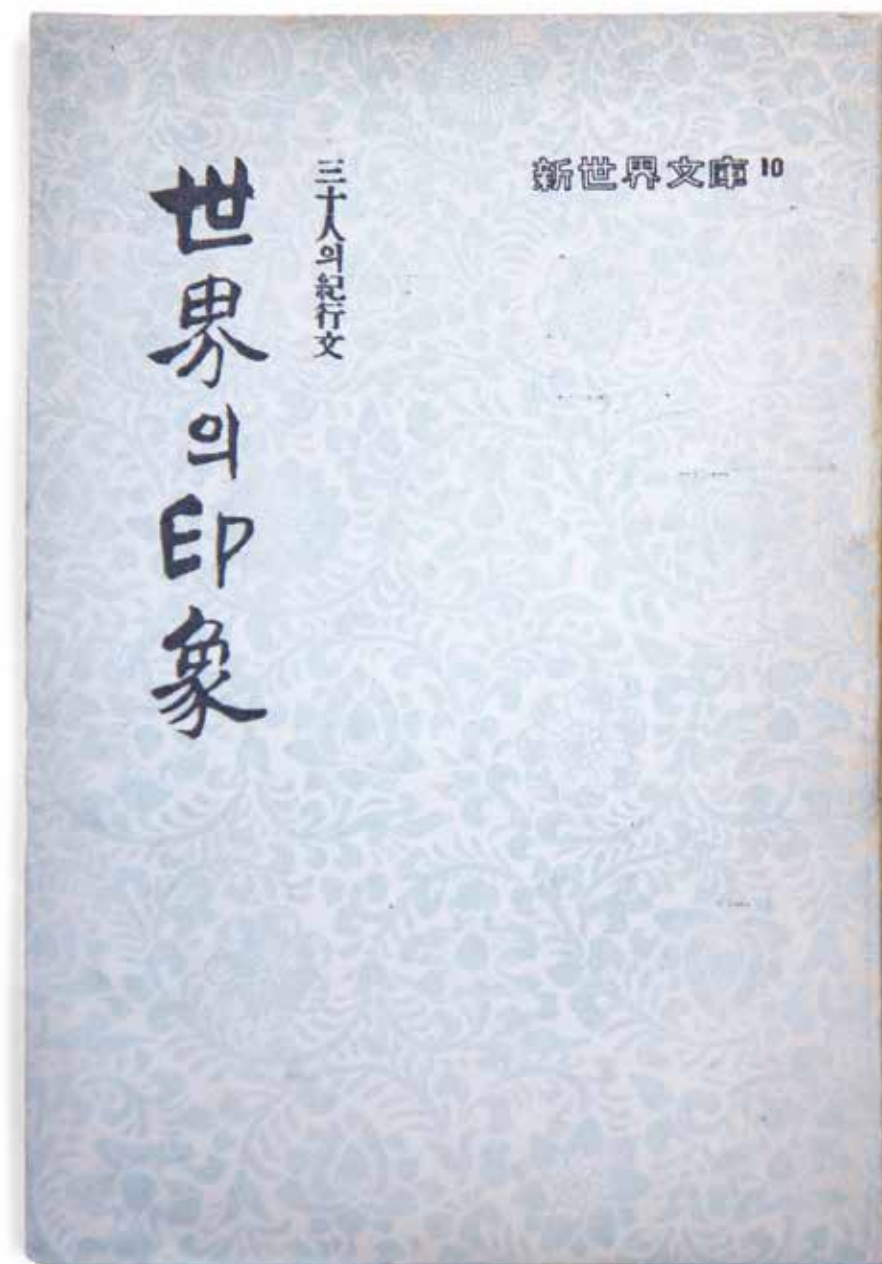
| 소장 한상언영화연구소



『소련기』, 리찬, 조소문화협회 중앙본부, 1947.

시인 리찬의 1946년 소련 방문기이다. 리찬은 소련 방문 기간 그루지야(조지아) 공화국의 영화 촬영소를 참관했는데 소련방에 소속된 작은 공화국의 영화 촬영소 참관은 북한 영화의 발전에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ㅣ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세계의 인상: 30인의 기행문』, 조홍연, 진문사,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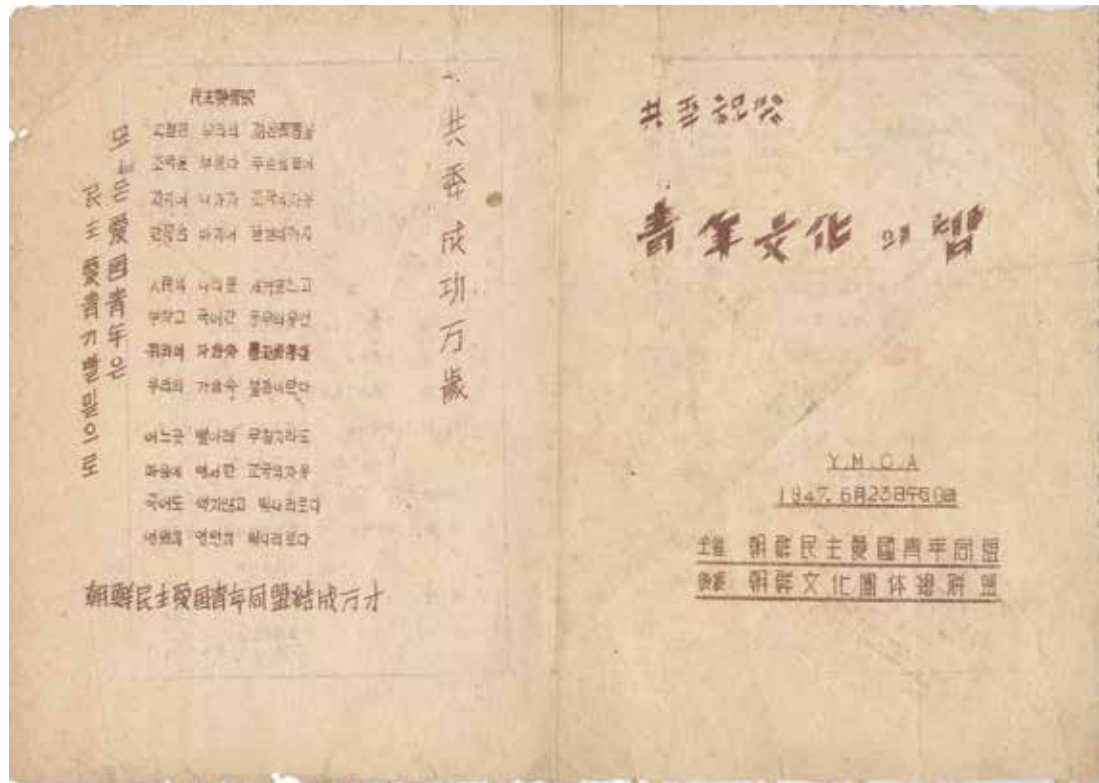
해외여행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조홍연이 저명인사 30인의 기행문을 엮어 낸 책이다. 이 책에는 베니스와 뉴욕의 감상을 적은 오영진의 글을 포함하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취재한 박인환의 글, 할리우드를 소개하는 이병일의 글이 실려 있다.

ㅣ 소장 엄동섭

1-3. 분단과 좌우갈등

미소공동위원회

신탁통치 문제로 촉발된 좌우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었다. 좌우갈등과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군정은 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공위축하 청년문화의 밤”(1947.6.23.) 제2차 미소공위 축하공연 전단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1947년 6월 23일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이 주최한 “청년문화의 밤” 전단이다.

1 소장 임동섭

남북연석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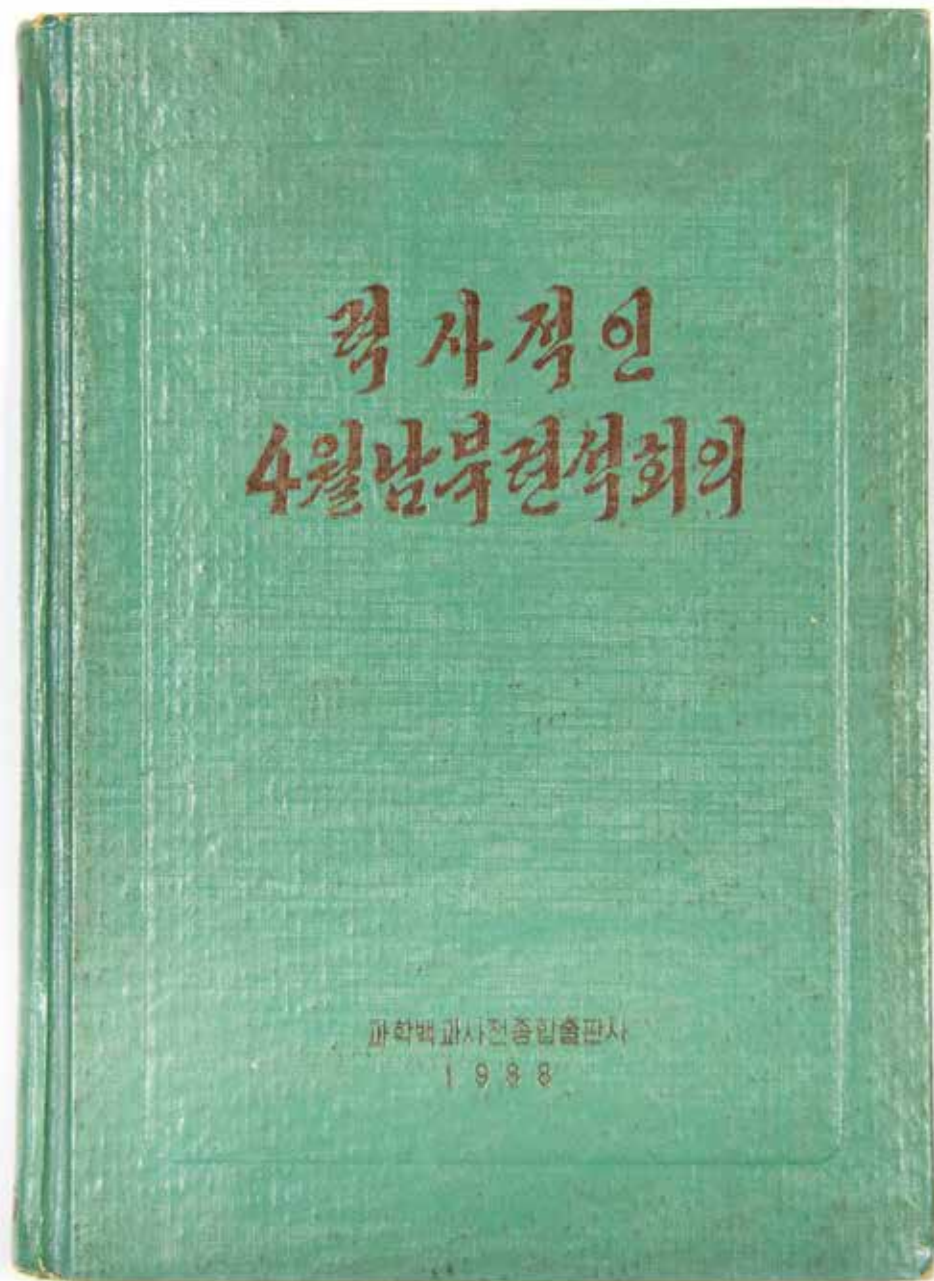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등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통일된 민족국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며 해방 이후 온 겨레가 염원하던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연석회의>(천상인, 1948) 영화장면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대표적인 기록영화이다. 1948년 4월 북한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복사하였다.

1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 정리근,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988년 1월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자들과 제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남북연석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 책은 김일성의 1988년 신년사를 기념하기 위해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의 관련 내용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 소장 한상언영화연구소



『북조선기행』, 서광제, 청년사, 1948.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의 수행기자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서광제의 기행문이다. 영화감독 출신으로 당시 독립신문의 편집인으로 있던 서광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의 이 기행문을 발간하고 곧 월북했다.

! 소장 한상언영화연구소

남북 단독정부 수립

남한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한 내에서는 남조선노동당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각종 대중단체들 모두 불법단체가 되었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남북 공히 각자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영화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상대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스파이 활동과 38선을 경계로 한 무력충돌은 남북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였다.



<성벽을 뚫고>(한형모, 1949) 시나리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성벽을 뚫고>(한형모, 1949) 포스터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친구 사이이자 처남 매부지간인 두 인물의 대결을 그린 영화이다. 한국전쟁 전 제작된 대표적인 반공영화로 연출은 한형모, 시나리오는 김영수가 맡았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38선>(강홍식, 1948) 영화장면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대표적인 기록 영화이다. 북한은 소련군의 주둔과 민주개혁을 통해 인민의 생활이 향상된 반면, 남한은 미국의 조종 하에 추악한 만행이 벌어지고, 인민들은 헐벗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복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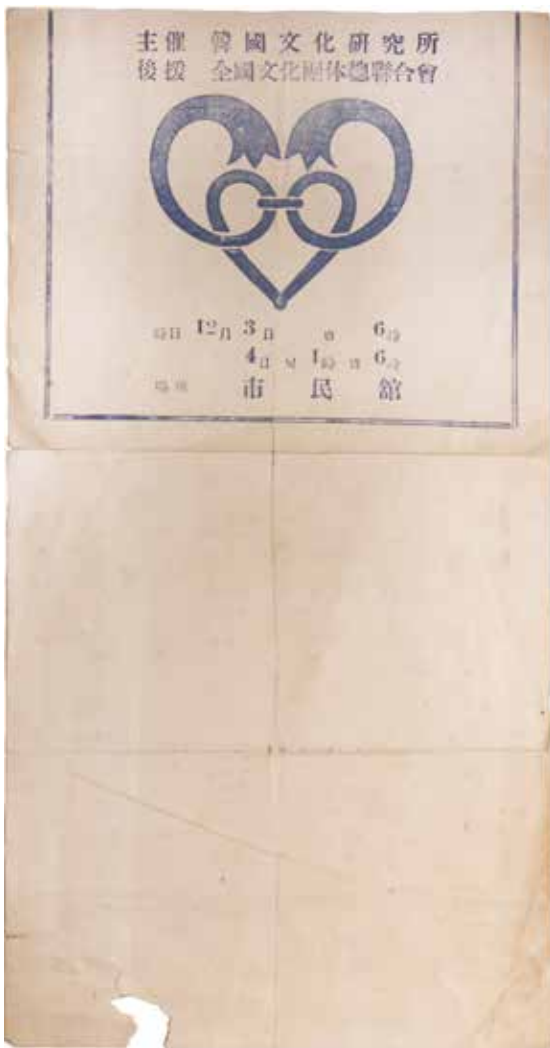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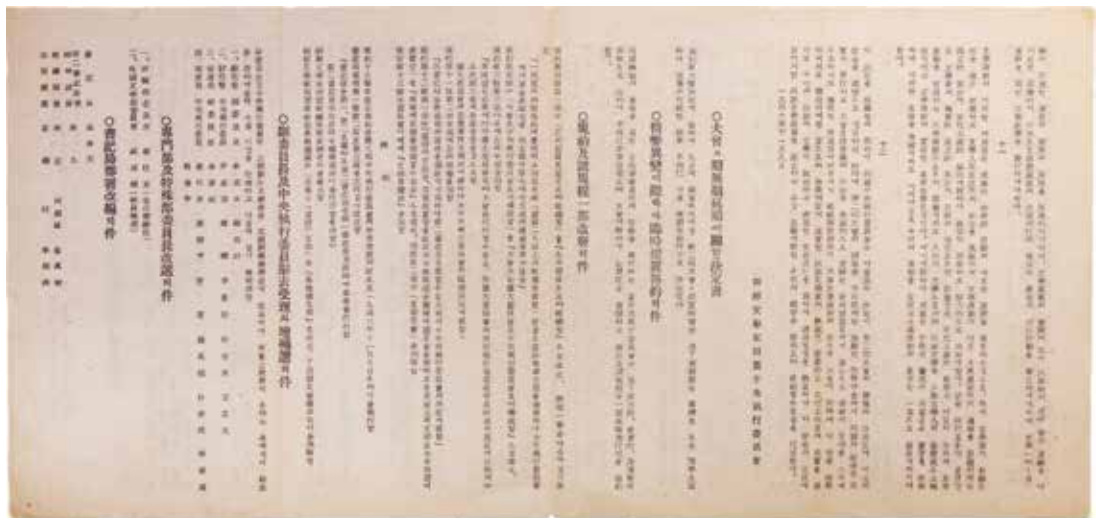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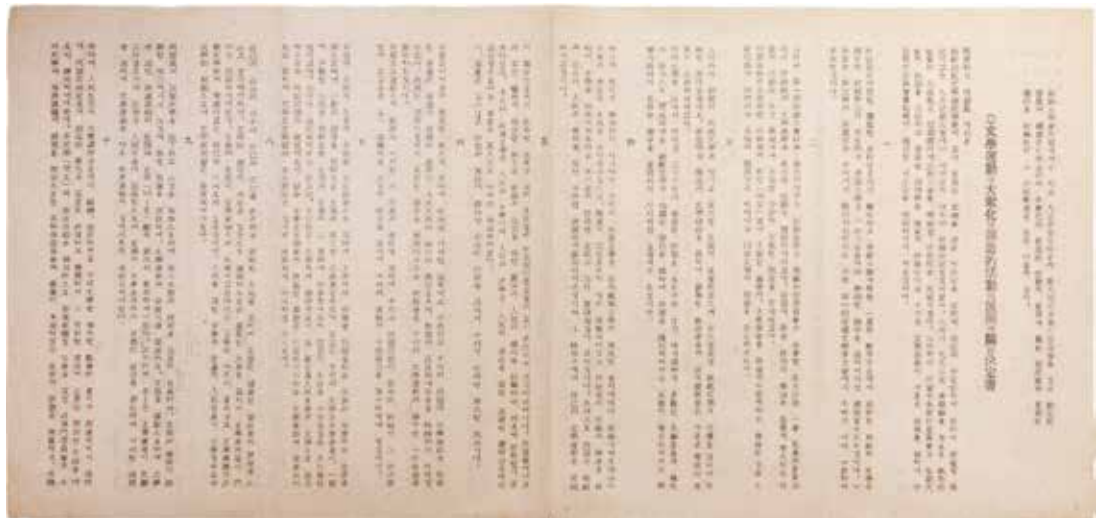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적치 6년의 북한문단』, 현수, 중앙문화사, 1952.

한국전쟁 중 월남한 시인 박남수가 현수(玄秀)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서적이다. 해방 직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장 엄동섭



“문학운동의 대중화와 창조적 활동의 전개에 관한 결정서”(1946.11.8.)

1946년 11월 8일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학운동의 대중화와 창조적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문학가동맹의 이 결정은 좌익 진영 문예운동의 기본적 노선으로 채택되었다.

1 소장 임동섭

“민족정신 양양 종합예술제”(1949.12.3.)

1949년 12월 3~4일 시민관에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최된 민족정신 양양 종합예술제 전단지이다. 종합예술제에서는 “소위북조선영화동맹에 보내는 경고장”을 한형모가, “문예봉에게 보내는 경고장”을 남궁련이 발표했다.

1 소장 임동섭

1-4. 해방기 영화잡지



《영화예술》 2호 (1949.8.) (복제본)

조선영화예술사가 발행(발행자 추민)한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잡지이다. 2호는 예술영화 <내 고향> 특집을 다루고 있다.



《영화예술》 3호 (1949.9.) (복제본)

8·15 해방 4주년을 기념,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우수 기록영화를 소개하는 등 지난 4년간 북한의 영화사업을 회고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영화예술》 5호 (1950.1.) (복제본)

영화 서클 활동 소개, <용광로> 촬영현장 취재 기사 등이 실려있다.



《영화시대》복간호 (1946.4.)

1932년 창간한 일제강점기 대표적 영화잡지 《영화시대》의 해방 후 복간호이다.
복간기념호에는 안종화의 시나리오 <백두산>이 실려 있다. 전시되는 잡지는 안종화 소장본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영화시대》2권 1호
(1947, 신춘특집, 조선영화협단 특집)

영화배우로 구성된 조선영화협단의 활동을 조명한
조선영화협단 특집이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시대》2권 4호
(1947, 7/8/9월 합본, 해방2주년기념 특집)

해방 2주년 특집호로 인천 건설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
<수우>(안종화 작)의 시나리오가 실려 있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씨클원수첩』, 북조선직업총동맹군중문화부, 1949.

북한의 직장 내 영화서클원들의 교양을 위해 각종 영화지식을 담은 책이다.

추민, 박완식, 성백수가 책임편집을 맡았다.

| 소장 한성연영화연구소



《예술영화》, 해연특집 (1948.5.)

<해연>을 제작한 예술영화사의 기관지 형식으로 발행된 잡지이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II. 남과 북의 영화를 일구다.

해방 후 적산기업이 된 조선영화사는 정부수립 이후 사단법인 대한영화사로 그 이름과 조직을 바꾸었다. 적산 조영에서 대한영화사로 이어지는 국가주도의 영화제작기업에서는 주로 뉴스와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다. 반면 극영화는 민간 제작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후 재조직된 고려영화협회에서는 최인규의 <자유만세>를 제작하였으며 계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다투어 만들어졌다. 또한 시국을 반영하듯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 사회적 문제들이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영화운동의 전면에서 활약한 영화인들은 1947년 남한 내 좌익 활동 금지로 인해 활동을 멈췄다. 삼천만의 여배우라 불리던 문예봉의 경우 지하로 숨었다가 단독정부 수립 전 월북했다. 영화운동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된 윤용규는 영화연출을 재개하여 종교적 사유의 영화 <마음의 고향>을 만들었으며 전쟁 중 북한으로 갔다.

북한에서는 제작, 배급, 상영 일체가 조선노동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1947년 국립영화촬영소가 설립되었으며 주인규, 강홍식, 추민, 문예봉, 심영, 박학 등 해방 전부터 중요하게 활약하던 영화인들에 의해 북한영화의 틀이 구축되었다. 6.25 전쟁 중 월북한 윤용규, 김연실, 최운봉, 남승민 등은 북한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II-1.다 한영호시와 북조선국립영호촬영소

대한영화사의 안석영과 안종화

해방 직후 남한에는 조선영화계의 전부가 할 수 있는 조선영화사가 남아 있었다. 조선영화사는 일제가 전쟁 동원을 위해 기존 10개의 영화제작회사의 등록을 폐지하고 만든 유일한 영화사로 영화와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다. 해방 후 적산처리 된 조선영화사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공보처가 인수하여 사단법인 대한영화사로 그 이름과 조직을 바꾸었다. 대한영화사의 전무이사로는 안석영이 임명되었으며 공보처 영화과장은 안종화가 임명되었다. 전쟁을 거치며 사라진 대한영화사를 대신하여 1957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설립되었다.



日時 禮紀四三八年四月十二日 火曜日 午後二時	出席 大統領 國務總理 內務 外務 商工 財務 法務 文教 社會 官 農林 交通 通信 總務 全對 公報 法制 水長	司會 大統領 後半 國務總理	一議決事項	內務 (一) 濟州特設警察官駐在延期費用要請件 全對處外協議進行件 議決件 (二) 警察官被服地 E.C.A 物資援助申請件 原則的 E.C.A 物資援助申請件 議決件	財務 (一) 銀行與信託制度改正件 議決件 (二) 銀行與信託制度改正件 議決件	交通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	---	-----------------------	--------------	---	---	---	---	---	---	---	---

日時 禮紀四三八年四月十二日 火曜日 午後二時	出席 大統領 國務總理 內務 外務 商工 財務 法務 文教 社會 官 農林 交通 通信 總務 全對 公報 法制 水長	司會 大統領 後半 國務總理	一議決事項	內務 (一) 濟州特設警察官駐在延期費用要請件 全對處外協議進行件 議決件 (二) 警察官被服地 E.C.A 物資援助申請件 原則的 E.C.A 物資援助申請件 議決件	財務 (一) 銀行與信託制度改正件 議決件 (二) 銀行與信託制度改正件 議決件	交通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總務 (一)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二) 人事特別承認件 議決件
--------------------------------	---	-----------------------	--------------	---	---	---	---	---	---	---	---



『한국영화측면비사』, 안중화, 춘추각,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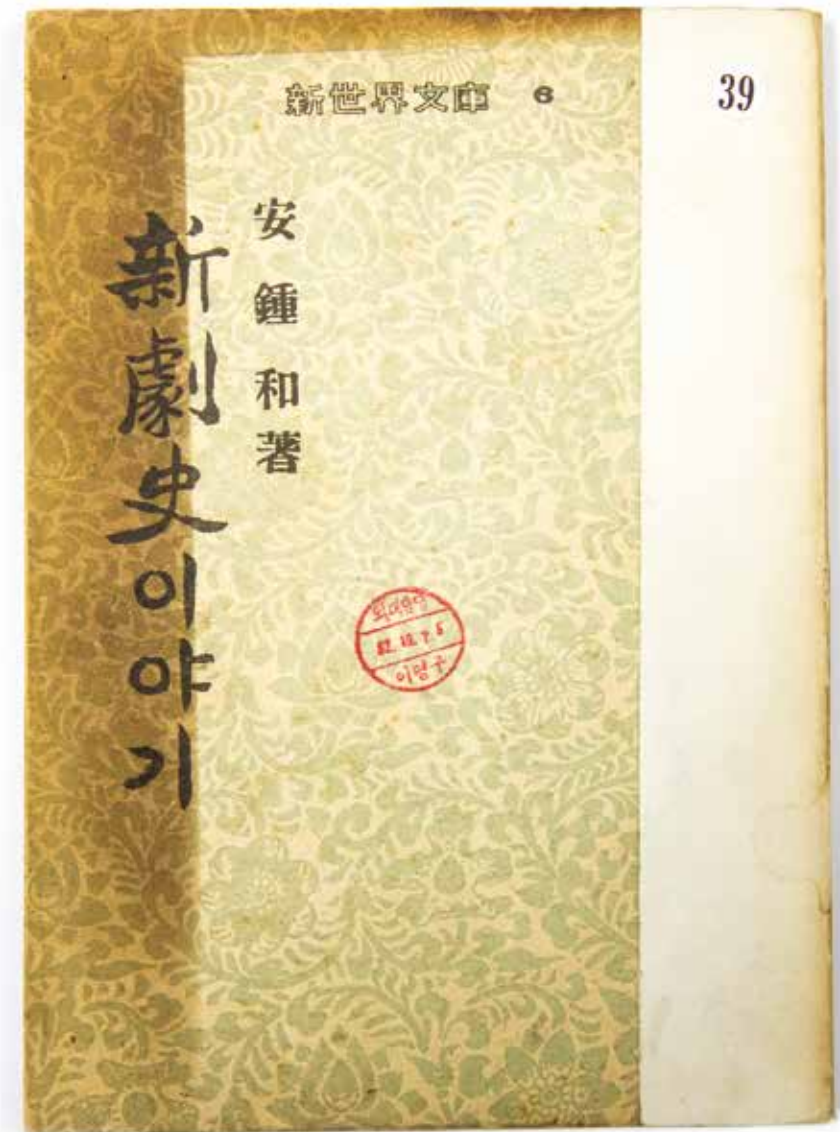
한국 영화 초창기부터 활동한 안중화의 영화 비망록.
초창기부터 일제 말기까지의 영화계 에피소드를 흥미 있게 다루었다.
| 소장 엄동섭



『희망』, 안석영, 금릉도서주식회사, 1948.

남한 영화계의 중요 인물이던 안석영의 해방 후 창작 시나리오를 단행본으로 발행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신극사 이야기』, 안종화, 진문사, 1955.

신파극단인 혁신단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한 안종화가 초기 연극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다.

안종화는 연극·영화계의 비사들을 증언함으로써 초기 한국연극·영화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영화촬영소의 주인공, 추민, 강홍식, 심영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영화제작 시설이 전무했다. 1946년 초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촬영하기 위해 평양에 온 젊은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영화반이 조직되어 영화제작 활동을 시작했다. 주인공가 북한영화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영화제작소의 면모를 갖춘 북조선영화사가 탄생했다. 이후 북조선영화사는 1947년 2월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로 발전하였다. 설립 당시 국립영화촬영소는 총장 주인공, 부총장 추민, 연출책임자 강홍식, 연기책임자 심영 등이 맡았다. 전쟁 당시 파괴된 국립영화촬영소는 휴전 후 복구되어 1957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로 조직이 분리되었다.



추민



강홍식(좌측, <복지만리> 영화스틸)



주인규(좌측, <망루의 결사대> 영화스틸)



강홍식(좌측)과 심영(우측)



추민이 시나리오를 쓴 <조국의 아들>(1956) 영화스틸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강홍식이 연출을 맡고 심영이 출연한 <항쟁의 서곡>(1960) 영화스틸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II-2. 윤용규의 <마음의 고향>, 그 후

1947년 여름 미군정에 의해 좌익단체의 활동이 중지되자 윤용규는 더 이상 영화운동 일선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연출의 기회를 얻게 된 그는 1949년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영화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냈다. 이 영화는 해방 이후 계속된 정치적 갈등과 좌우의 반목을 잊을 수 있는 작품으로 산사의 고즈넉함과 종교적 사유가 어우러진 수작이었다. 한국전쟁 중 월북한 그는 전쟁 기간 동안 소년들의 빨치산 투쟁을 담은 <소년빨치산> (1951)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1952)을 연출했다. 전쟁 직후에는 여성빨치산 대원을 소재로 한 <빨치산의 처녀> (1954)를 완성했다. 그는 이후 <신혼부부>(1955)와 같은 전후 복구를 다룬 영화에서부터 컬러영화 <춘향전>(1958) 처럼 기술적 성취를 담은 민족고전까지 북한의 주요 영화를 연출하며 북한영화계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



윤용규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 단체사진

윤용규(연출), 함세덕(원작), 한형모(촬영), 변기중, 유민, 최은희, 김선영, 오현용, 남승민, 최운봉, 석금성 등(이상 출연)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 영화장면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윤용규) 포스터

윤용규가 연출한 이 영화는 재일조선인들 사이에서 상영되었다. 이 포스터는 당시 상영회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

〈헌해탄〉을 읽은 직후 나는 마을 공회당에서 북한 영화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다. 재일조선인단체와 시즈오카 좌익 영화서클협의회가 상영회를 주최했다. “필름은 기대 이상으로 탄탄한 수작으로, 그 정도로 훌륭한 영화가 ‘용단폭격’ 사이를 비집고 만들어졌다는 건 경이”라고 나는 일기에 썼다. 나는 조선전쟁(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미군에 저항해서 자신의 ‘향토’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비친 북한 파르티잔(빨치산) 모습에 매료돼버렸던 것이다. 다 보고 나서도, 또 보고 있는 중에도 〈헌해탄〉과 비교해 보면서 조선인의 혁명 에너지라는 걸 생각했다. 이 영화에서는 마을 여성동맹위원장 순덕을 연기한 유경애의 연기가 단연 빛났다. 한편 함께 간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정확한 비평을 했다. “공산주의국에서 만든 것이니까 다분히 미국에 악역을 맡기고 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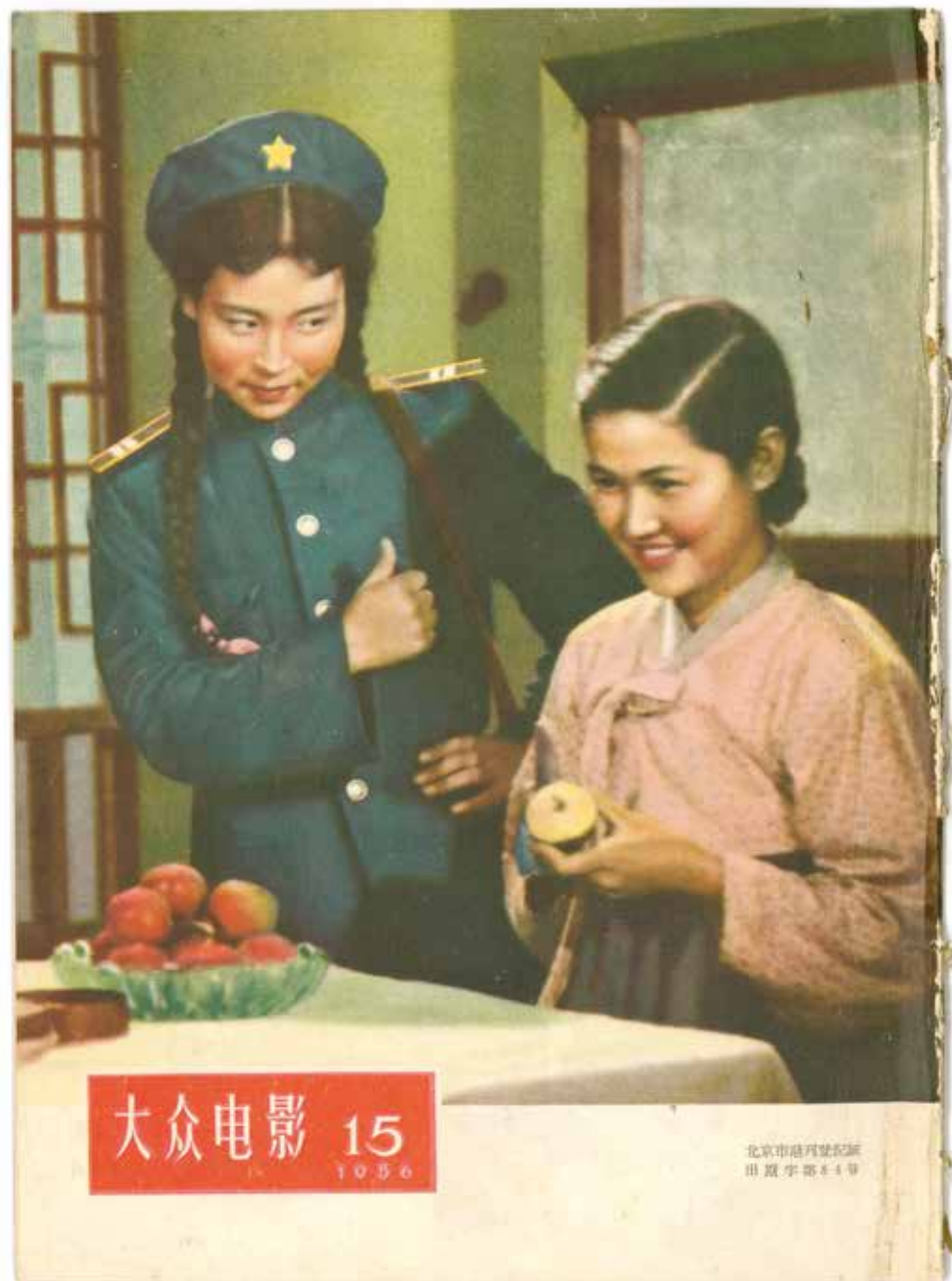
와다 하루키, 『와다하루키회고록』김달수의 ‘헌해탄’, 한겨레, 2006.6.9.



『우리는 승리하였다』, 국립출판사, 1954.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문학예술상 수상 극문학집이다. 윤두현의 시나리오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은 희곡 부문 1위를 차지해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실려 있다. 그 외 희곡 〈강화도〉(송영), 〈바다가 보인다〉(한성), 〈1211 고지〉(홍건)이 실려 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대중전영》 표지에 실린 <신혼부부>(윤용규, 1955) 영화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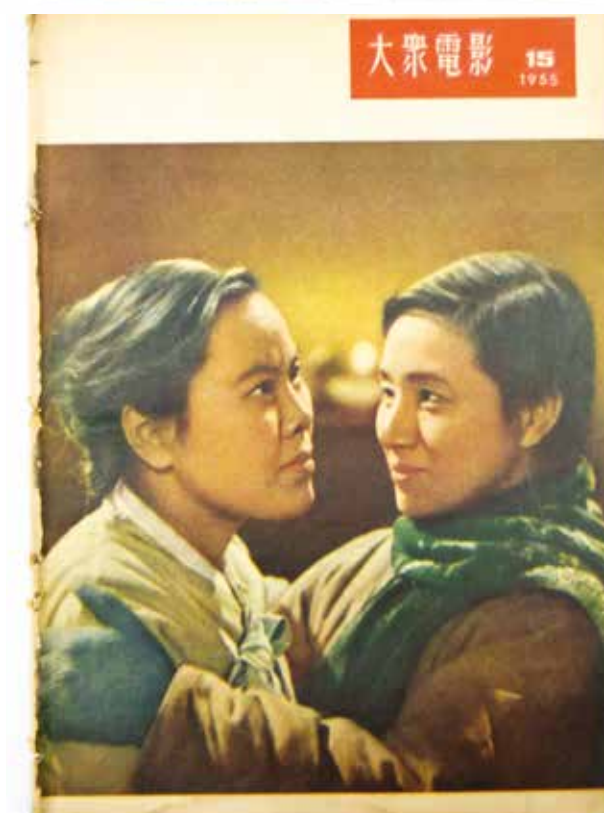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대중전영》, 1952.3. 뒷표지: 소년빨치산

중국의 영화잡지 《대중전영》 1952년 3호에서는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상”을 수상한 윤용규 연출의 <소년빨치산>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대중전영》, 1955.15. 표지: 빨치산의 처녀

윤용규가 연출한 <빨치산의 처녀>를 표지로 한 중국의 영화잡지 《대중전영》 1955년 15호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II-3. 오영진과 주영섭 그리고 박학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한 평양에서 영화는 오영진, 연극은 주영섭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오영진은 조만식의 비서로 있으며 소련군에 의해 북한지역의 영화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조만식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나자 평양을 탈출해 서울에서 시나리오 작가 겸 극작가로 활동 했다. 한때 북한에서 보낸 괴한들의 습격을 받기도 한 그는 평생 반공주의자로 살았다.

주영섭은 가족만 월남시키고 홀로 평양에 남아 평양국립극단 연출가로 활약했으며 전쟁 이후 국립영화촬영소로 옮겨와 <금강산의 처녀>(1959)와 같은 작품을 연출하는 등 시나리오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였다.

혁명적 평민을...

연출가 주 영섭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의 평양에서. 주영섭은 대동강변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그는 평양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는 평양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는 평양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오영진



내한한 존포드 감독과 오영진(위 왼쪽에서 세 번째)

주영섭



이승만 대통령 초청 영화인 사진(위 왼쪽부터 김동원, 김승호, 오영진, 이병일, 전창근, 전택이, 유치진, 이해랑, 아래는 이승만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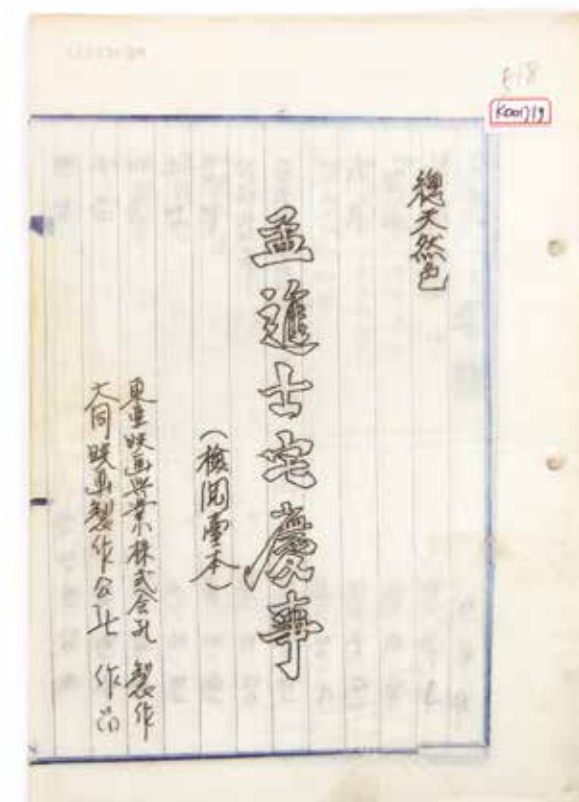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 예술인 초청 단체사진



『하나의 증언』, 오영진, 중앙문화사, 1952.

1947년 월남한 영화인 오영진이 소군정 시절 평양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수기이다.
| 소장 엄동섭



〈맹진사댁 경사〉(이용민, 1962)

오영진 육필원고

오영진 원작 〈맹진사댁 경사〉를 <시집가는 날>에 이어 두 번째 영화한 작품으로 오영진의 육필 시나리오이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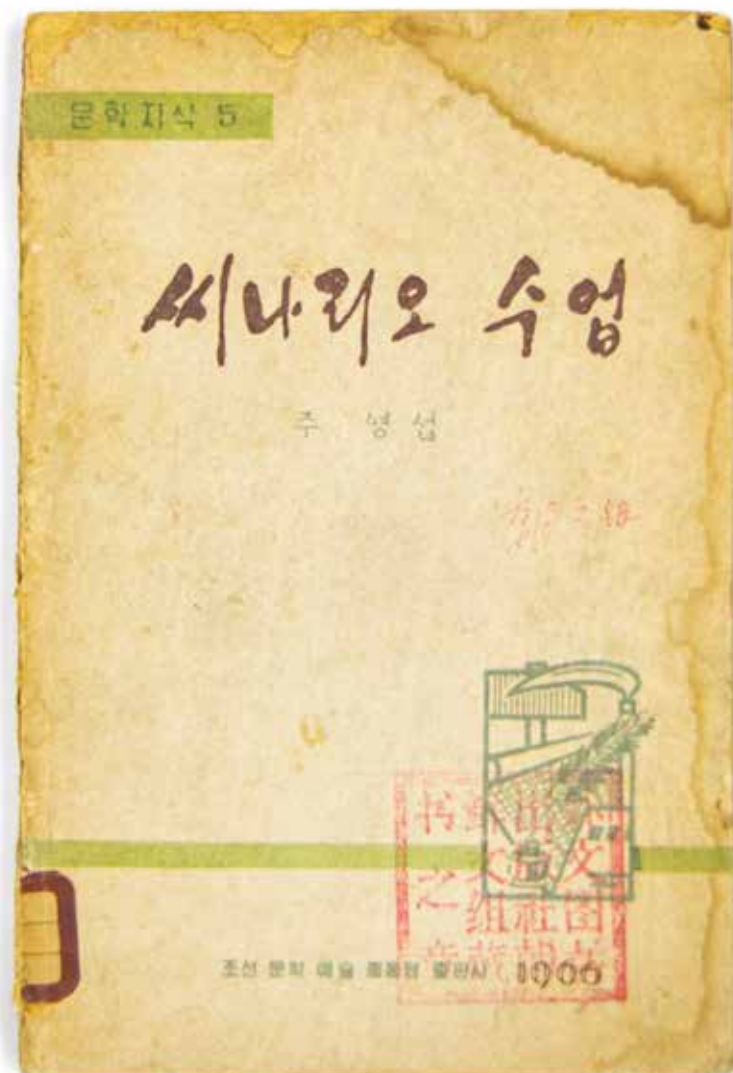


〈시집가는 날〉(김웅천, 1977)

검열 당시 시나리오

해방 전 오영진이 쓴 시나리오 <맹진사댁 경사>는 해방 후 <시집가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1957년 제4회 아세아영화제에 출품되어 한국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시나리오는 1977년 김웅천 감독이 연출한 <시집가는 날> 검열 시나리오이다.

| 소장 한국영상자료원



『시나리오 수업』, 주영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시나리오 이론서로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강의했던 주영섭이 영화잡지 《조선영화》에 연재했던 글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단행본으로 묶었다.

ㅣ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조선영화》, 1959.7. 표지: 금강산의 처녀

연극 연출을 주로 하던 주영섭은 전쟁 이후 영화촬영소로 옮겨 시나리오 작성 및 영화 연출 분야에서 활약했다. 《조선영화》 1959년 7월호 표지는 주영섭의 대표작 <금강산의 처녀>의 한 장면으로 꾸몄다.

ㅣ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평양 출신으로 해방 전후 <어화>와 <자유만세>, <해연> 등에 출연했던 박학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 극단 예술극장과 함께 북한으로 갔다. <내 고향>을 비롯해 <용광로>, <또 다시 전선으로>, <정찰병>등 주요 영화에서 주역을 맡아 연기한 그는 1961년 영화 감독으로 전향한 후 데뷔작인 <분계선 마을에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1963년에는 영화인 최초로 인민배우가 되었으며 1972년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 불리는 <꽃파는 처녀>를 연출했다. 1982년 사망할 때까지 백두산창작사의 전속 연출가로 있었던 그는 북한의 대표적 영화인으로 꼽힌다.



박학



박학이 출연한 <동틀 무렵>(1960) 영화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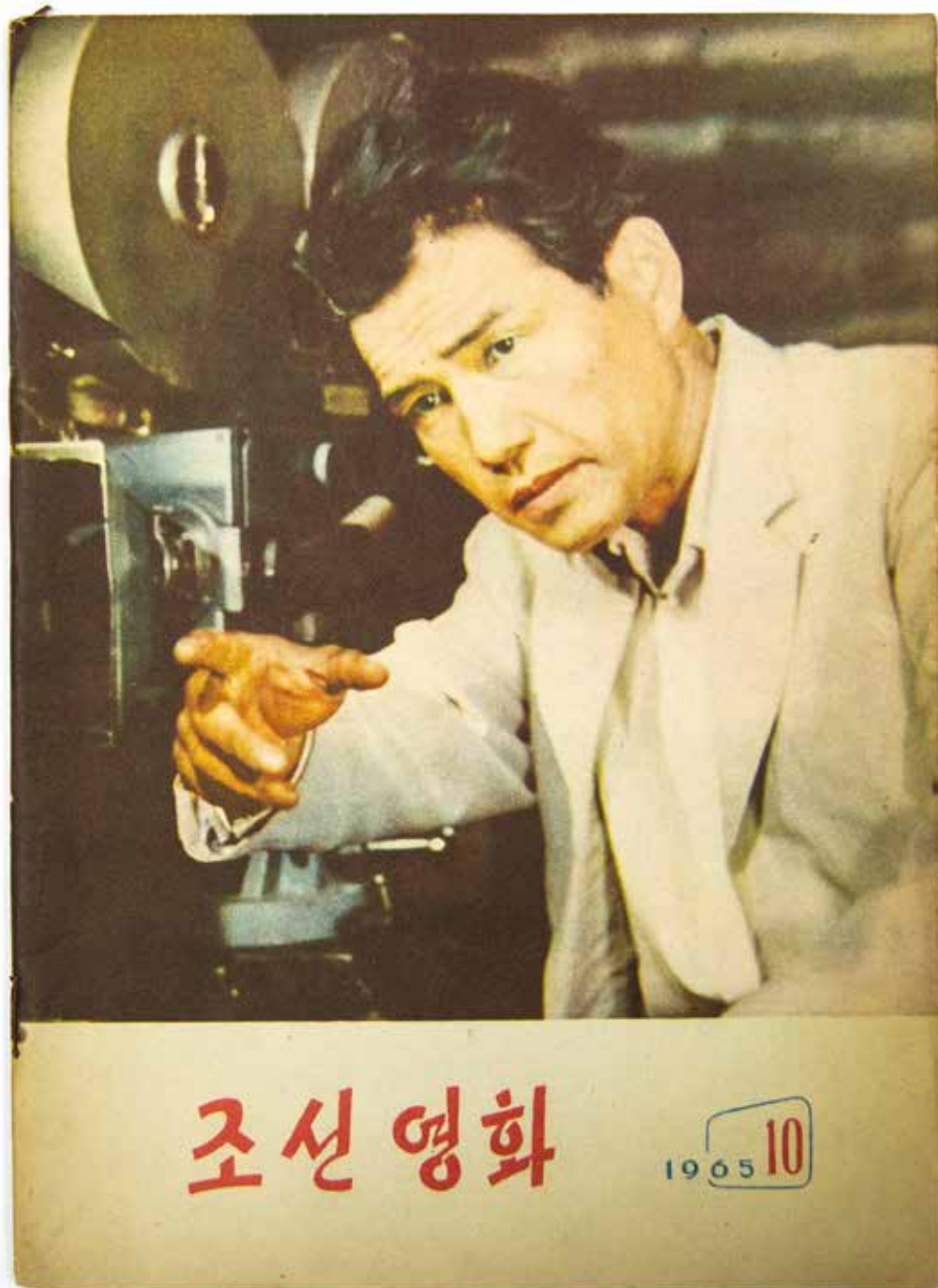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대중전영》, 1954년 16기(1954.8.) (표지 : 박학 출연 <정찰병>)

전동민 연출의 <정찰병>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박학의 모습이 중국의 영화잡지 《대중전영》 1954년 16기의 표지로 사용되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조선영화》, 1965.10 (표지 : 박학 연출 사진)

1960년대 북한영화는 연기자에서 연출자로 전향한 박학이 이끌었다.

《조선영화》 1965년 10월호는 <한 지대장의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는 박학의 모습을 표지사진으로 실고 있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조선예술》, 1972.8-9 (표지 : 박학 연출 <꽃파는 처녀>)

박학은 주체영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꽃파는 처녀>를 연출했다.

《조선예술》 1972년 8-9호는 <꽃파는 처녀>의 한 장면을 표지로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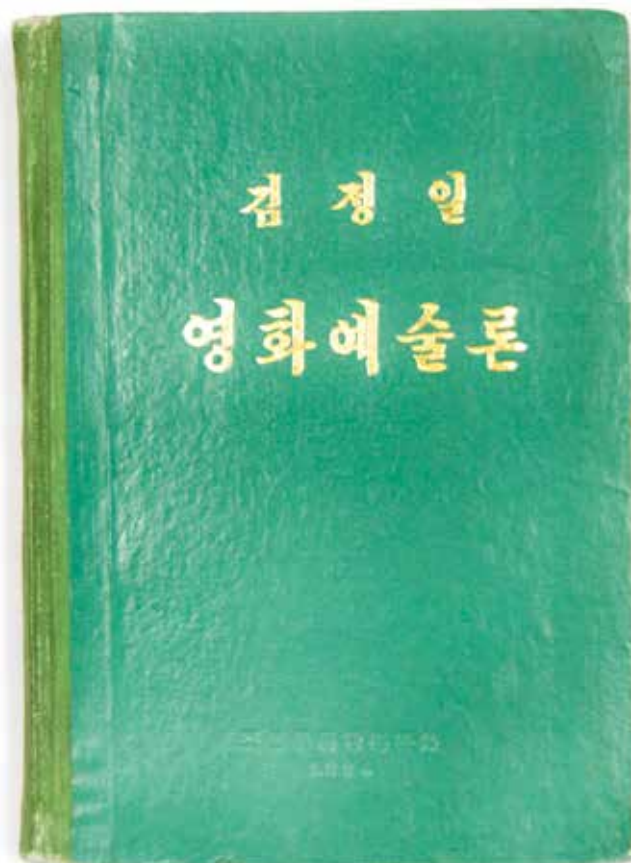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연출수업』,
웨.니즈니, 최창엽 역, 조선예술사, 1960.

에이젠슈타인은 해방 전부터 조선 영화인들
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감독이었다.
이 책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강의를 묶어
발행한 것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 연출
교재의 하나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영화예술론』,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973년 김정일이 발표한 『영화예술론』은
주체영화에 대한 이론서로 북한 영화인의
교범과도 같은 책이다. 전시물은 1984년
발행된 책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영화연출의 기본

영화 연출 참고 자료

상

조선 문학 예술 출판사 출판사

1964



영화연출의 기본

영화 연출 참고 자료

하

조선 문학 예술 출판사 출판사

1964

『영화연출의 기본(상/하)』, 김득권 역편,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소련의 영화연출 교재로 활용되는 쿨레쇼프의
저작을 북한의 영화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Ⅲ. 분단의 아픔, 영화는 계속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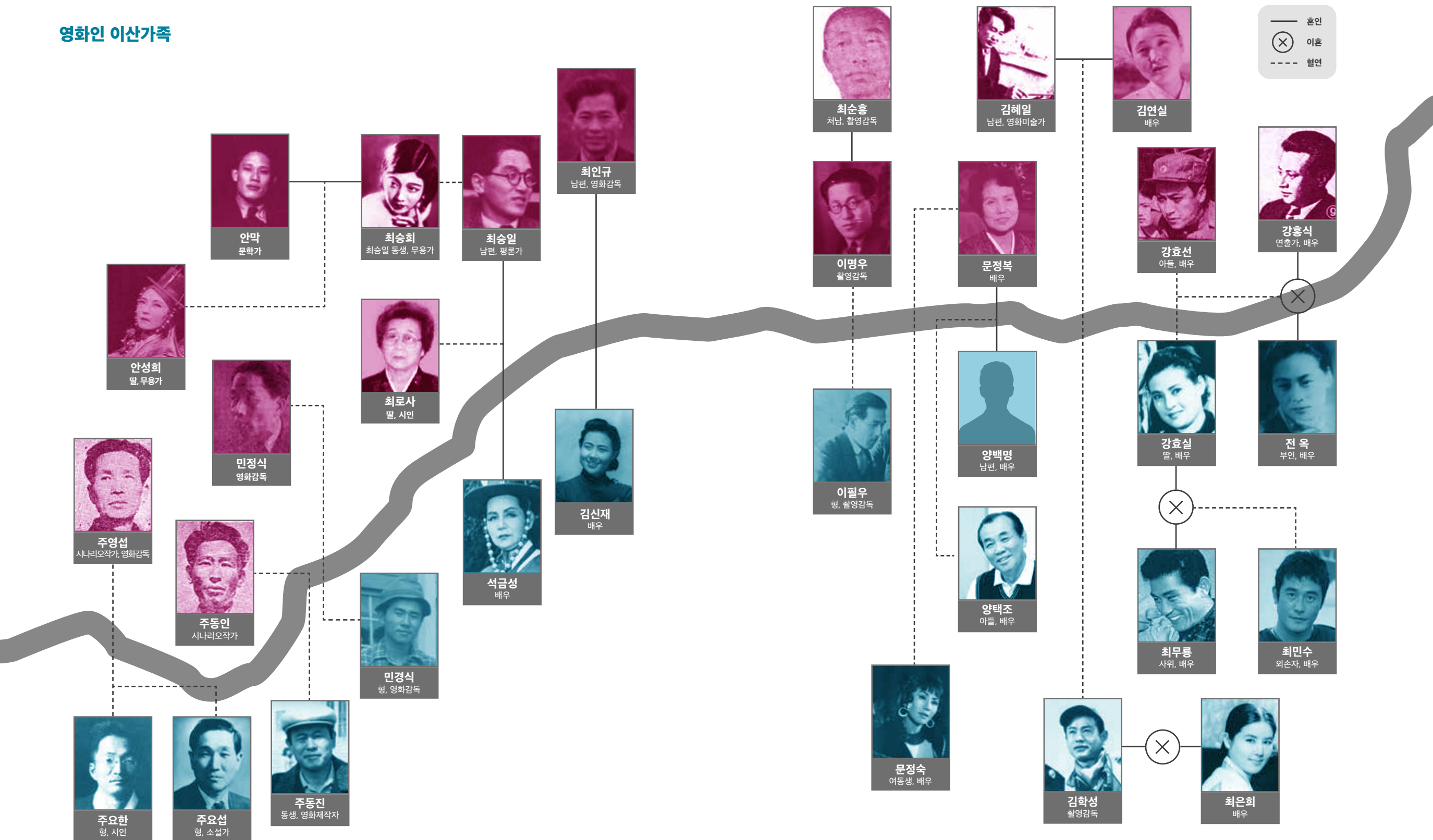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화인들은 남과 북으로 흩어졌다. 강홍식과 강효실(부녀), 최인규와 김신재(부부), 이필우와 이명우(형제), 문정복과 문정숙(자매), 김연실과 김학성(남매) 등이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헤어진 가족과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김세영, 유경애 등 일부 영화인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을 만났다.

남북 단독정부 수립 전후 제작된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이데올로기적 차이 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졌다. <해연>에 출연했던 배우 중 조미령만 남한에 남고, 다른 배우들은 북한으로 가서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 <내 고향>에 출연했다.

<마음의 고향>에 출연했던 배우 중 번기중, 석금성, 최은희 등은 남한에서 활동했으며 김선영, 최운봉, 남승민은 북한으로 가서 <소년 빨치산>(1951)과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1952)에 출연했다. 혈육과 같은 우정을 나눴든 아니면 날선 비판과 대립을 서슴지 않았든 간에 이제는 다 보고 싶은 얼굴일 뿐이다.

III-1 남북으로 나뉜 영화인들

영화인 이산가족



강홍식(1902-1971)

영화배우이자 영화감독, 가수.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닛카츠의 영화배우로 있었다. 1927년 심훈이 연출한 영화 <먼동이 틀 때>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으며 취성좌와 조선연극사에서 연극 활동을 했다. 1930년대에는 가수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다시 영화에 출연하였고 유치진이 이끌던 현대극장에도 참여했다. 해방 후 북한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최초의 예술영화 <내 고향> (1949)의 연출을 맡는 등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하는 것은 물론 <산매>(1957)와 같은 영화에서는 배우로도 출연했다.

강효선

영화배우. 강홍식의 아들로 북한최초의 예술영화인 <내 고향>(1949)에서부터 영화에 출연했다. 1957년에 제작된 <산매>에서는 아버지 강홍식과 함께 연기하였으며 <임무>(1966)를 비롯해 <민족과 운명-노동계급편> (1994) 등에 출연했다.

강효실(1932-1996)

영화배우. 강홍식과 전옥 사이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연기활동을 시작하여 평양 국립극단의 단원으로 활약했다. 6.25전쟁 중 월남하여 극단 신탁을 비롯해 국립극단, 실험극장, 극단 산하에서 배우 활동을 했다. 1955년 <죽임의 상자>로 영화에 데뷔하였으며 <오 내 고향> (1959), <명동에 밤이 오면>(1964) 등에 출연했다. 주로 텔레비전 연기자로 활약했다.

김신재(1919-1998)

영화배우. 안동고녀를 중퇴 후 최완규가 운영하던 신의주 신극장에서 근무했다. 최완규의 동생 최인규와 결혼 후 최인규의 권유로 영화배우가 되었다. <심청>(1937), <수업료>(1940), <집없는 천사>(1941) 등의 영화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해방 후 영화 출연을 멈추었으나 6.25전쟁 중 남편 최인규가 납북되면서 생계를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1983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근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김연실(1911-1997)

영화배우. 1927년 나운규프로덕션의 영화 <잘 있거라>로 데뷔했으며 1930년대 중반까지 무성영화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군림하였다. 또한 1930년부터는 가수로도 활동하였으며 낙랑이라는 다방을 운영하였다. 낙랑은 당대 문화인의 사교공간으로 유명했다. 6.25전쟁 발발 후 남편 김혜일과 함께 월북하였다. 북한에서 <정찰병>(1953), <승냥이>(1956), <항쟁의 서곡>(1960)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김학성(1913-1982)

촬영기사. 누나 김연실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 촬영술을 배웠다. 그곳에서 촬영기사로 활동하던 중 귀국하여 <성황당>(1939), <집없는 천사>(1941) 등의 영화 촬영을 맡았다. 해방 후 <새로운 맹서>(1947) 등의 촬영을 담당하였다. 6.25전쟁 중 중군촬영반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전황을 촬영 중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쟁 후 <생명>(1958), <오발탄>(19610, <성웅 이순신>(1962) 등의 영화를 촬영하였다.

김혜일(1912-1994)

영화미술가. 독학으로 미술을 배웠다. 화신인쇄소와 조선 문화사의 도안가와 삽화가로 근무했으며 1940년대에는 만선일보에서 도안가로 있었다. 해방 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로 근무했다. 6.25전쟁 발발 후 부인 김연실과 함께 월북하여 국립영화촬영소 영화미술가로 근무했다. <정찰병>(1953)을 비롯하여 <항쟁의 서곡>(1960), <분계선 마을에서>(1961), <성장의 길에서>(1964), <유격대의 오형제>(1968) 등의 영화미술을 담당했다.

문정복(1922-1990)

영화배우. 동양극장의 전속극단인 호화선과 아랑 등에서 배우생활을 했다. 해방 후 월북하여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했다. <내 고향>(1949)을 비롯하여 <검사는 말한다>(1980), <전사의 어머니>(1979), <광주는 부른다>(1985), <첫 보안서원들>(1984), <생의 흔적> (1989) 등에 출연했다. 1962년 공훈배우 칭호를, 1984년에는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문정숙(1929-2000)

영화배우. 언니 문정복과 함께 극단 아랑에서 배우활동을 시작했다. 6.25전쟁 중 신상옥 감독이 만든 <악야>로 영화에 데뷔했다. 이후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유전의 애수>(1956), <오발탄>(1961), <만추> (1966) 등 다수의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마지막 출연작은 1996년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학생부군신위>였다.

민경식(1916-?)

영화감독. 월북한 영화감독 민정식과는 형제지간이다. 대구 만경관의 간판을 그리며 흥행계에 진출하였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피난민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태양의 거리>로 감독 데뷔를 했다. 전쟁 이후 <구원의 애정> (1955), <내일 없는 그 날>(1959) 등을 연출했다.

민정식(?-?)

영화감독.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연출부에 있으며 <조선해협>(1943)의 조연출을 맡았다. 해방 후 좌익진영에서 활동 하다가 월북하였다. <용광로>(1950), <조국의 아들>(1955), <끝나지 않은 전투>(1957), <전우>(1958), <새봄>(1962), <뜨거운 심장>(1963), <한 전사의 이야기> (1964), <보이지 않는 전선>(1965) 등을 연출했다.

석금성(1907-1995)

영화배우. 1925년 토월회를 통해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영화에도 출연했다. 해방 전 출연작으로는 <심청전>(1937), <그대와 나>(1941) 등이 남아 있으며 해방 후 대표작으로는 <마음의 고향>(1949), <춘향전> (1955), <시집가는 날>(1956) 등이 꼽힌다. 말년에는 주로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하였다.

안막(1910-?)

카프 출신의 문학가. 1920년대 후반 와세다 대학 재학 중 카프에 가입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1934년 카프 해산 이후에는 부인 최승희의 매니저이자 예술감독으로 활약했다. 해방 이후 월북하여 북한문단의 실력자 중 한명으로 군림하였다. 문화선전성 부상으로 있던 1958년 숙청당한 후 이후 복귀하지 못했다.

안성희(1932-?)

무용가. 아버지는 문학가 안막, 어머니는 무용가 최승희이다. 어머니 최승희 밑에서 무용을 배웠으며 소련에서 유학했다. 1956년 모스크바 국제 무용콩쿠르에서 집시춤으로 1등상을 수여 받았다. 이어 소련 영화 <일리아 무로메츠>(1956)와 조소합작영화인 <형제들>(1957)에 출연했다. 최승희의 후계자로 다수의 무용작품을 발표했으며 1964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양백명

배우. 1924년 현철이 세운 조선배우학교를 통해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박승희가 주재하던 토월회에서 연기를 이어갔으며 1930-40년대에는 동양극장 전속 호화선과 아랑에서 배우로 있었다. 해방 후 <안중근 사기>(1946)를 비롯해 <성웅 이순신>(1962) 등 영화에도 출연했다.

양택조(1939-)

성우 겸 영화배우. 배우 양백명과 문정복 사이에서 태어났다. 1965년 이만희 감독의 연출부로 영화계에 진출했으며 이후 TBC 성우로 활약했다.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다. 1997년 제작된 MBC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명우(1901-?)

촬영기사이자 영화감독. 우리나라 최초의 촬영기사 이필우의 동생으로 형에게서 촬영기술을 배웠다. 1920년 대 중반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임자 없는 나룻배>(1932)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에서 촬영을 맡았으며 최초의 토오키 영화인 <춘향전>을 연출하였다. 해방 후 이명우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전우>(1949) 등을 제작했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다.

이필우(1897-1978)

우리나라 최초의 촬영기사. 우미관 영사기사로 있던 중 일본으로 건너가 촬영기술을 배웠다. 단성사에서 제작한 <장화홍련전>(1924)을 비롯해 다수의 작품을 촬영했다. 또한 토오키 영화 <춘향전>(1935)의 녹음을 맡아 우리나라 최초의 토오키 영화를 완성시켰다. 6.25전쟁 시기에는 해군촬영대 소속으로 기록영화를 제작했다.

전옥(1912-1969)

영화배우. 1927년 <낙원을 찾는 무리들>과 <잘 있거라>를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했다. 1928년 무렵부터 토월회와 취성좌, 조선연극사 등에서 연기를 했다. 1930년대에는 남편 강홍식과 함께 가수로도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복지만리>(1941), <병정님>(1944) 등의 영화에 출연하였고 재혼한 남편 최일과 함께 극단 운영에 주력했다. 해방 이후에는 백조가극단을 이끌었으며 <고려장>(1963), <육체의 문>(1965)과 같은 영화에도 출연했다.

주동인(?-?)

시나리오 작가. 6.25 전쟁 이후 활동을 시작한 북한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작가 중 한명이다. <신혼부부>(1955), <행복의 길>(1956), <산매>(1957), <그의 소원>(1959), <애국자>(1959), <녀성영웅광부>(1960), <항쟁의 서곡>(1960), <대지의 아들>(1963), <량반전>(1964) 등 다수의 작품이 영화화 되었다.

주동진(1927-2003)

영화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주동인의 동생. 1962년 한양 영화사에 입사하여 영화제작을 시작했다. 1965년 연방 영화사를 설립하여 서영춘이 주인공을 맡은 <여자가 더 좋아>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15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한 후 회사를 부사장 최춘지에게 물려주고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1990년 미국에서 개최한 남북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영화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주영섭(1912-?)

연극연출가이자 영화감독. 문학가 주요한, 주요섭의 동생 이다. 일본 호세이 대학 유학 중 도쿄학생예술좌를 이끌었다. 귀국 후 유치진이 이끌던 현대극장에 가입하여 연출자로 활약했다. 해방 후에는 평양방송국 편성과장으로 있으며 연극연출을 맡았다. 6.25 전쟁 이후에는 국립 영화촬영소로 소속을 옮겨 영화감독으로 활약했다. 대표작으로는 <달려라 소년호>(1958), <금강산 처녀>(1959), <붉은 넥타이>(1959) 등이 있으며 평양연극 영화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주요섭(1902-1972)

소설가. 일본과 중국, 미국에서 수학했다. 1934부터 1943년까지 중국 베이징의 푸렌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경희대에서 근무했다. 1921년 『개벽』에 단편 「추운 밤」을 게재한 이후 평생 4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 중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와 「아네모네의 마담」(1936) 등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주요한(1900-1979)

시인이자 언론인, 정치인. 1919년 『창조』에 「불놀이」를 발표 등단했다.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의 편집을 맡았으며 귀국 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서 근무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검거 되었으며 1938년 병보석으로 출옥하였다. 해방 후 『국민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고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서 활동했다. 장면 정부에서는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최로사(1932-2011)

시인이자 작사가. 아버지는 문학가 최승일이며 어머니는 배우 석금성이다. 해방 후 먼저 월북한 아버지가 있는 북한으로 갔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 재학 중 인민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쟁 중 창작한 시 「샘물터에서」가 가요로 만들어져 이름을 떨치게 된다. 량강도예술단과 피바다가극단, 조선문학창작사의 작가로 활약했으며 2001년 김일성계관인 칭호를 받았다.

최무룡(1928-1999)

영화배우. 중앙대 법정대학 재학 중이던 1947년 대학연극경연대회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1954년 영화 <탁류>에 출연하면서 영화에 데뷔하였다.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총 8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오발탄>(1961)을 비롯해 <빨간 마후라>(1964)와 <남과 북>(1965)등이 있다.

최민수(1962-)

영화배우. 유명 영화배우인 최무룡과 강효실 사이에서 태어났다. 1987년 <신의 아들>로 데뷔하였으며 <결혼 이야기>(1992)와 <테러리스트>(1995) 등의 영화에 출연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MBC의 <사랑이 뭐길래>(1991), SBS의 <모래시계>(1995)와 같은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인정받았다.

최순홍(1918-?)

촬영기사.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촬영기사인 이명우의 처남으로 이명우 문하에서 촬영기술을 배웠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1939)를 통해 촬영기사로 데뷔 하였다. 해방 후 좌익진영에서 활동하던 중 월북하여 예술영화 <용광로>(1950)를 비롯해 다수의 기록영화에서 촬영을 담당했다.

최승일(1901-1966)

카프 출신의 문학가이자 방송인.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송영 등과 염군사를 조직하였다. 경성방송국 설립 이후 프로듀서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1930년대 초반에는 나운규와 함께 미나토좌를 근거지로 한 프로연극을 시도하여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최승희가 크게 성공한 이후 최승희의 국내 매니저 역할을 했으며 영화 <지원병>을 제작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월북하였으나 큰 활동은 없었다. 『조선예술』 1957년 5월호에 「염군사 전후」라는 글을 남겼다.

최승희(1911-1969)

우리 근대무용을 상징하는 무용가. 이시이 바쿠(石井漢) 문하에서 무용을 배웠다. 1932년 첫 단독 공연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해방 후 월북하여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열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북한 최초의 컬러예술영화 <사도성의 이야기>(1956)와 조소 합작영화 <형제>(1957)에 출연하였으며 북한 최초의 인민배우 중 한명으로 『조선민족무용기본』(1958)과 『조선아동무용기본』(1964)을 출간하였다.

최은희(1926-2018)

영화배우. 1943년 극단 아랑을 통해 배우생활을 시작했다. 1947년 <새로운 맹서>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촬영기사 김학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 이혼하고 영화감독 신상옥과 재혼했다.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신필름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78년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1986년 탈출하였는데 북한에서 신상옥이 연출한 <탈출기>(1984), <소금>(1984)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최인규(1911-?)

영화감독. 1939년 <국경>의 연출을 맡으며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고려영화협회에서 제작한 <수업료>(1940), <집 없는 천사>(1941)등을 연출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일제 말기에는 친일영화 <태양의 아이들>(1944)과 <사랑과 맹세>(1945)를 연출했다. 해방 후 <자유만세>(1946) 등을 연출하였다. 한국 전쟁 중 납북되었다.

남북으로 나뉜 <해연>과
<마음의 고향> 스태프들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 신문광고
(동아일보, 195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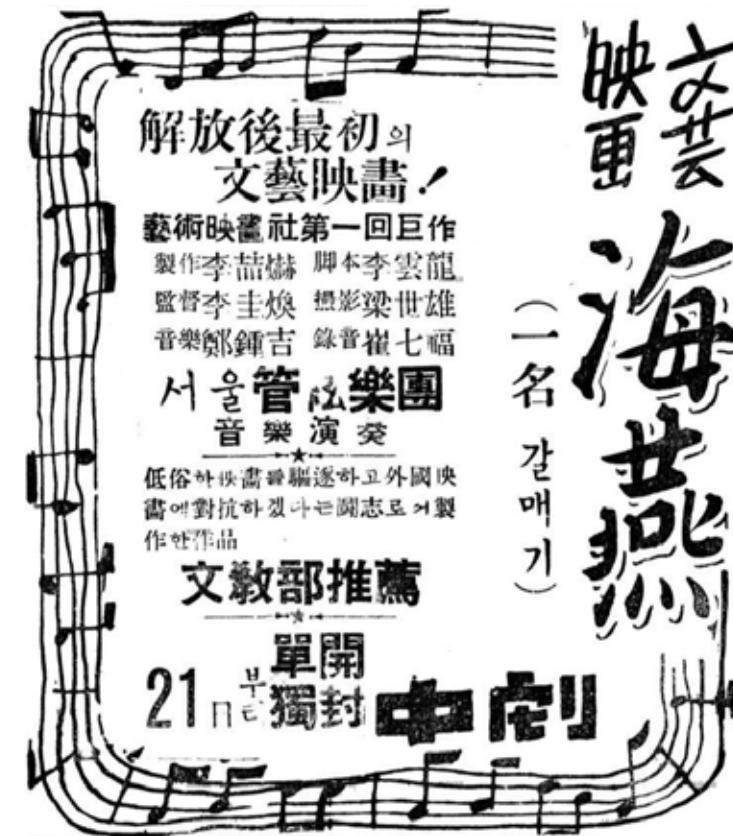
북한



남한



<마음의 고향>(1949), 스태프들



<해연>(이규환, 1948) 신문광고
(경향신문, 1948.11.20)

북한



남한



<해연>(1948), 스태프들

III-2. 여배우 트로이카의 운명의 행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여배우 트로이카 문예봉, 김소영, 김신재는 해방과 분단을 거치며 남한, 북한, 미국으로 흩어져 각기 다른 삶을 살았다.

해방 후 영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문예봉은 미군정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948년 월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녀는 북한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말년까지 활동하며 인민배우의 칭호를 받았다. 해방 후 영화운동 활동과 몇 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김소영은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해방기에 영화 활동을 잠시 멈췄던 김신재는 한국전쟁 중 남편 최인규가 납북되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배우 활동을 재개하였다. 예전처럼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말년까지 한국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배우였다.



<조선해협>에 출연한 문예봉(왼쪽)과 김신재(오른쪽)



문예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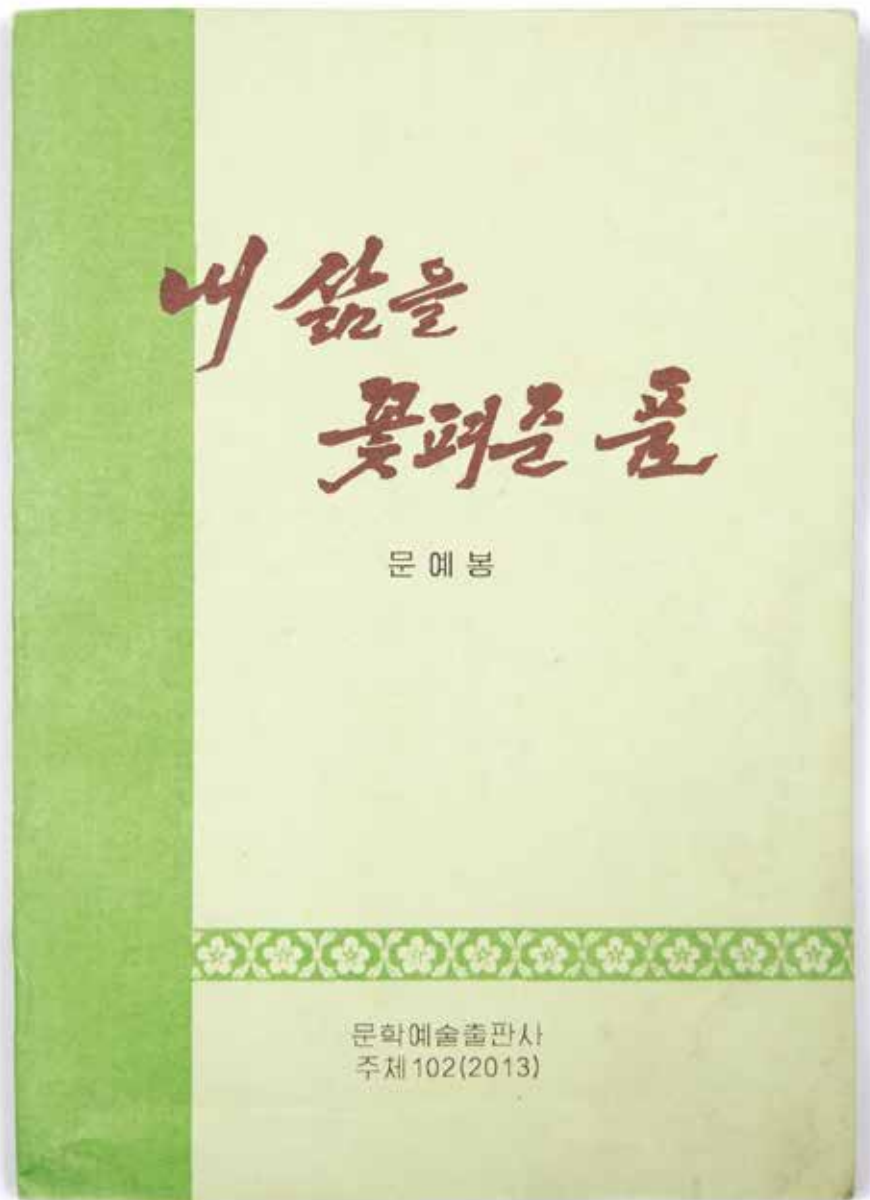
말년의 문예봉



북한에서 최은희(맨 오른쪽)와 함께 기념 촬영한 문예봉(가운데)
| 기증 신상옥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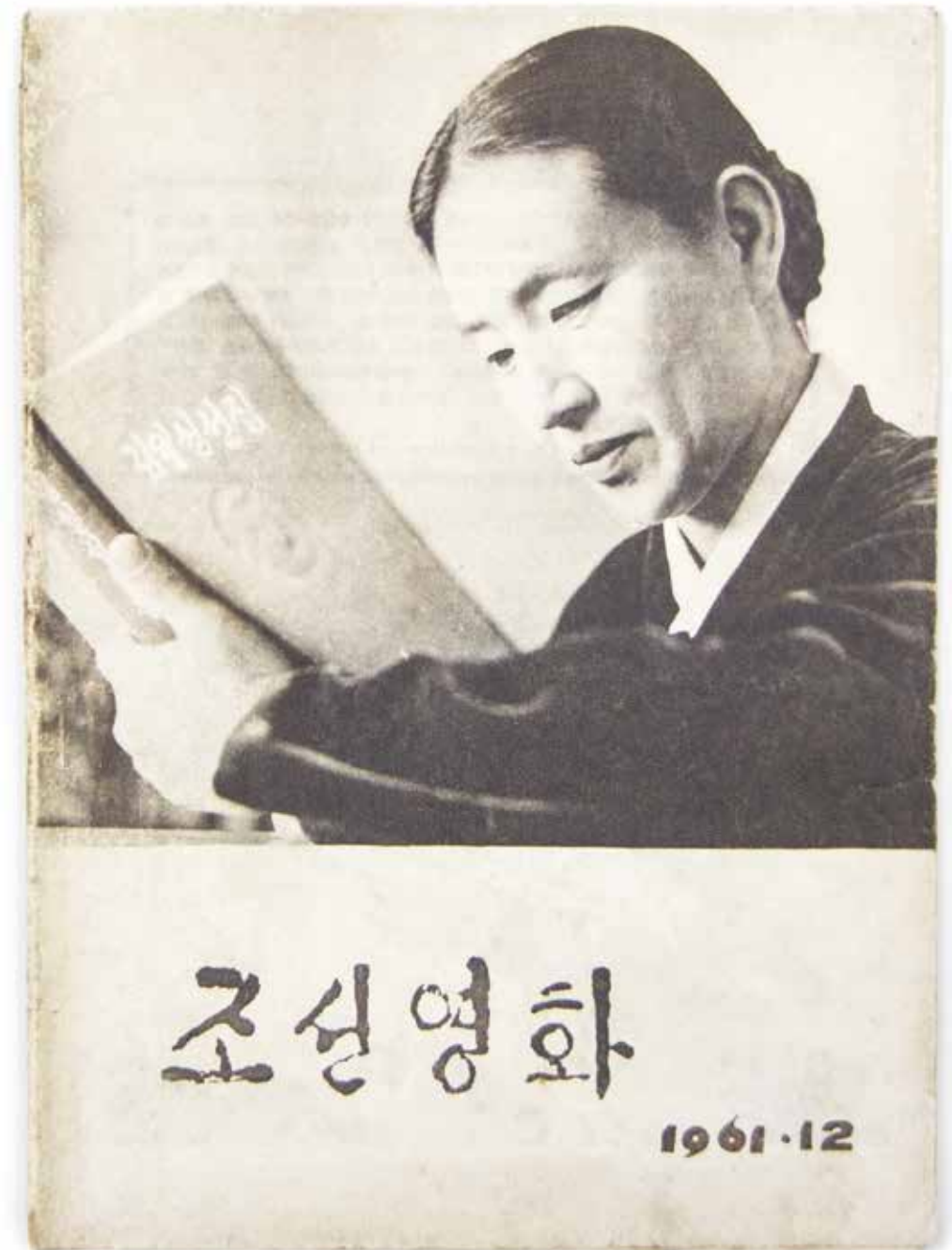
<임자없는 나룻배>(이규환, 1932)에 출연한 문예봉



문예봉 자서전 『내 삶을 꽃피운 풀』

북한 최초의 공훈배우 중 한명이며 193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스크린에서 활약한 문예봉의 자서전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조선영화》, 1961.12. 표지 : 문예봉

문예봉의 사진을 표지로 실고 있는 《조선영화》 1961년 12월호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김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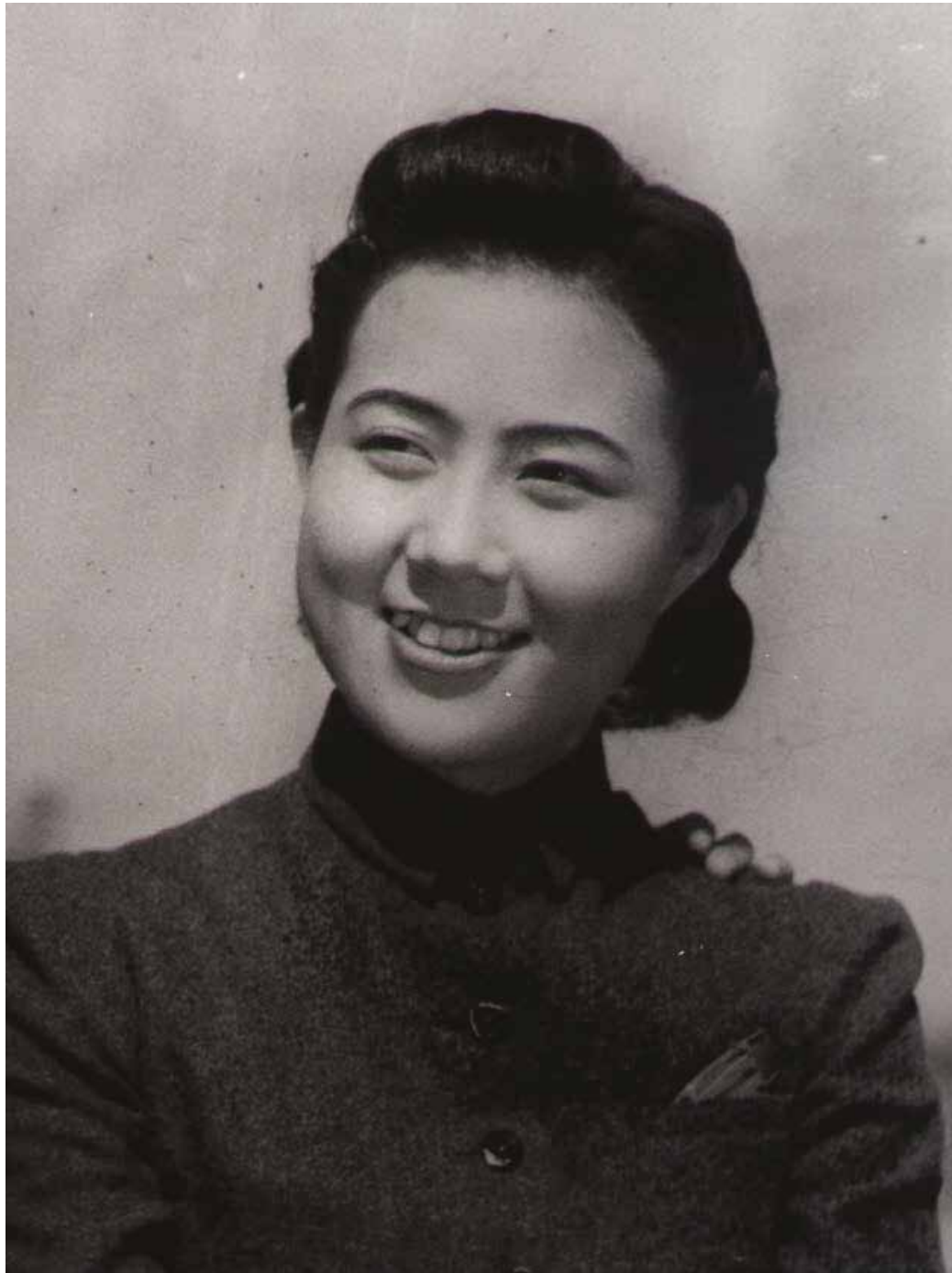
<국경>(최인규, 1939)에 출연한 김소영



김소영
| 기증 영화진흥위원회



김소영(가운데)과 안철영(맨 왼쪽)



김신재



김신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남편 최인규 감독(오른쪽에서 두 번째)
| 기증 전택이/노경희



김신재
| 기증 영화진흥위원회



왼쪽부터 김연실, 이향란, 김신재



박남옥 감독(윗줄 왼쪽), 홍은원 감독(윗줄 오른쪽), 김신재(아랫줄 가운데)

III-3 신진 영화인들의 등장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영화는 만들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영화는 대중들의 대표적 오락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았다. 1950년대 남북의 영화는 해방 후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신진영화인들에 의해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남한영화는 김기영(평양), 신상옥(청진), 유현목(사리원) 등 고향이 이북 출신인 영화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북한영화는 윤용규(대구), 민정식(대구), 정준채(광주) 등 남한 출신이 주도했다. 이들을 비롯해 전후 남북한 영화는 해방 이후 새롭게 영화계에 등장한 인물들이 영화계의 중추가 되었다. 해방기에 새롭게 등장한 북한 대표 영화인으로는 천상인, 전동민, 김락섭, 정준채 등이 있다.



<황해의 노래>(정준채, 1960) 영화스틸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천상인, 1956) 영화스틸



<심청전>(김락섭, 1957) 포스터

해방 후 영화계에 입문한 김락섭은 소련 유학 후 <백두산이 보인다>를 연출하며 영화감독으로 데뷔하였다. 김락섭이 연출한 <심청전>은 창극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이 포스터는 소련에 수출되어 상영할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애국자>(전동민, 1959) 포스터

전동민은 <정찰병>(1953)을 연출하며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행복의 길>(1956), <애국자>(1959), <땅>(1959), <동틀 무렵>(1960) 등을 연출했다. <애국자>는 송영 원작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를 각색하여 만든 작품이다.

| 소장 한상연영화연구소

해방기 영화 제작 현황과 발굴영화 소개

조소연[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터]

1. 해방기 한국영화와 보유 현황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거나 소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해방기에 제작된 남북영화 여러 편을 발굴, 소개하였다. 한국영화로는 1946년 미공보부가 제작한 <시보> 4편과 <민족의 절규 제2편>(안경호, 1948)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61편이다. 해방 직후 <해방 뉴-쓰>를 찍던 영화인들은 1946년에 이르러서야 극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자유만세>(최인규, 1946)를 시작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안중근 사기>(이규영, 1946), <불멸의 밀사>(서정규, 1947), <윤봉길 의사>(윤봉춘, 1947), <민족의 새벽>(이규환, 1947), <삼일혁명기>(이규영, 1947), <유관순>(윤봉춘, 1948) 등 독립운동과 애국선열을 소재로 한 소위 '광복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1947년 즈음부터 문화영화(<제주도 풍토기>(이용민, 1946)), 멜로영화(<새로운 맹서>(신경균, 1947)), 괴기영화(<목단등기>(김소동, 1947)), 계몽영화(<해연>(이규환, 1948)), 음악영화(<푸른 언덕>(유동일, 1949))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특히 1949년에는 <마음의 고향>(윤용규, 1949), <파시>(최인규, 1949)와 같은 예술성 높은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1948년을 전후로 좌우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남북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성벽을 뚫고>(한형모, 1949), <전우>(홍개명, 1949), <나라를 위하여>(안중화/서정규, 1949) 등의 반공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 기록(문화)영화가 많이 제작된 것도 주목할 만한데, <무궁화 동산>(안철영, 1948), <장추화 무용>(최인규, 1948), <희망의 마을>(최인규, 1948), <민족의 절규>(안경호, 1948), <고려방직>(방의석, 1949) 등과 같이 남한의 정치, 산업, 문화 현황을 홍보하

거나, <여수순천 반란사건>(1948), <북한의 실정>(이창근, 1949), <무너진 삼팔선>(윤봉춘, 1949) 등 공산주의의 만행과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영화들이 주로 제작되었다.

이렇듯 영화계는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며 영화제작은 다시 급격히 축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해방 후부터 전쟁기에 제작된 영화필름들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6.25전쟁 직전까지 제작된 61편의 영화 중 필름이 남아 있는 영화는 [표1]에서 보듯이 이번에 발굴, 공개된 <민족의 절규 제2편>을 포함해 고작 10편에 불과하다. <민족의 절규 제2편>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탁, 반탁으로 좌우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에 제작된 기록영화로, 우익을 대표하는 이승만에 대한 우상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남아 있는 해방기 영화 10편 중에서 반공과 우익의 정치적 의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史料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영상자료원이 2005년에 발굴 공개한 바 있는 <해방 뉴-쓰> 4편과 함께, 이번 전시를 통해 1946년에 미공보부가 제작한 뉴스영화 <시보> 4편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복사해온 자료로, <시보> 1, 2, 5호 3편은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과 1차 회의 등 1946년 초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보> 1편은 1946년 12월 남조선 입법의원 개원식을 기록하고 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비롯한 1946년의 주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방 뉴-쓰>의 실체와 미공보부의 관련성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던지는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표1] 1945~1953년 한국에서 제작된 극/기록 영화 목록¹⁾

구분	제작편수	제목	감독	제작사	비고	KOFA 보유현황
1945	2~5	사랑과 맹서	최인규	조선영화사	45. 5. 24개봉	O
		우리들의 전쟁	신경균	조선영화사	해방 전 제작 동일작품으로 추정	
		피와 땀				
		감격의 일기				
1946	4	안중근사기	이규영	계몽문화협회		O
		자유만세	최인규	고려영화주식회사		
		돌돌이의 모험	이규환	남일영화사		
		제주도 풍토기	이용민	조선영화사	문화영화	
1947	13	불멸의 밀사	서정규	한국영화연구소		
		민족의 성벽	전창근	육상경비대포병단	기록	
		새로운 맹서	신경균	청구영화사		
		해방된 내 고향	전창근	전창근프로덕션		
		그들이 가는 길	임운학	태양영화사		
		패자의 수도	유장산	자유영화사	기록	
		목단등기	김소동	조선영화과학연구소		
		바다의 정열	서정규	금성영화사		
		윤봉길 의사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민족의 새벽	이규환	대광영화사		
		삼일혁명기	이규영	계몽문화협회		
		그들의 행복	이규환	이규환프로덕션		
		천사의 마음	김정환	향린원		
1948	21	죄 없는 죄인	최인규	고려영화사		
		여명	안진상	건설영화사		
		검사와 여선생	윤대룡	김영순프로덕션		O
		민족의 절규	안경호	국민문화영화사	기록	O
		희망의 마을	최인규	미국공보원	문화영화	
		지성탑	김정환	향린원		
		그 얼굴	전창근	전창근프로덕션		
		해연(갈매기)	이규환	예술영화사		O
		밤의 태양	박기채	수도청 경우회		
		여인	전창근	전창근프로덕션		
		수우	안중화	건설영화사		
		사랑의 교실	김성민	김성민프로덕션		
		유관순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독립전야	최인규	고려영화사		O
		끊어진 항로	이만홍	RXX 프로덕션		
		홍차기의 일생	임운학	태양영화사		
		장추화 무용	최인규	미국공보원	기록	
		국민투표	최인규	미국공보원		
		여수순천 반란사건		중앙영화사	기록	
		대도시	이진	한성영화사		
		무궁화동산	안철영	서울영화사	기록	O

1949	21	마음의 고향	윤용규	동서영화사		O
		심판자	김성민	김성민프로덕션		
		풍랑	우현	우현프로덕션		
		조국의 어머니	윤대룡	대보영화사		
		성벽을 뚫고	한형모	김보철프로덕션		
		전우	홍개명	미공보원		
		여성일기	홍성기	전위영화사		
		나라를 위하여	안중화, 서정규	대한영화사		
		청춘행로(춘색시, 머느리의 설움)	장황연	예술영화사		O
		고구려의 혼	임운학	우주영화사		
		북한의 실정	이창근	국방부정훈국	기록	
		안창남비행사	노필	독립영화사		O
		백범국민장식기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기록	
		돌아온 어머니	이규환	이계하프로덕션		
		목동과 금시계	이용민	서울영화사		
		애국자의 아들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1950	3	파시	최인규	고려영화사		
		고려방직	방의석	계몽문화협회	기록	
		대지의 아들	신경균	청구영화사		
		무너진 삼팔선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기록	
		푸른언덕	유동일	세한영화사		O
		여인애사	신경균	청구영화사	50. 2. 23 개봉	
		놀부와 흥부	이경선	금강영화사	50. 5. 8 개봉	
		아름다웠던 서울		서울시	기록(전쟁 중 완성)	
1951	7	화랑도	강춘	화랑영화사		
		오랑캐의 발자취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기록	
		서부전선	윤봉춘	계몽문화협회	기록	
		육군포병학교	방의석	계몽문화협회	기록	
		3천만의 꽃다발	신경균	예술영화사		O
		내가 남은 삼팔선	손전	영남영화사		
		정의의 진격1	한형모	국방부 정훈국	기록	O
1952	7	성불사	윤봉춘	한일영화사		
		전이의 진격2	한형모	국방부 정훈국		O
		태양의 거리	민경식	자유영화사		O
		공포의 밤	손일포	연남영화사		
		악야	신상옥	영상예술협회		
		베일부인	어약선	청구영화사		
		낙동강	전창근	무명영화사		
1953	6	애정산맥	이만홍	아일영화사		
		최후의 유혹	정창화	국제영화사		
		총검은 살아있다	조인복	극동영화사	기록	
		진격만리	임운학	1사단15연대 정훈부	기록	
		영광의 길	윤봉춘	계몽영화사		
		청춘	이만홍	황남프로덕션		

1) 『한국영화자료편람』, 영화진흥공사, 1976 ; 이우석, “광복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113/142쪽 ; 한국영상자료원 KMDB 홈페이지(www.kmdb.or.kr)를 참고하여 재구성

2. 해방기 북한영화와 보유 현황

이번 전시에서 “북한영화 특별관” 섹션을 마련하여 북한 영화 13편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들 13편 중에서 <내 고향>(강홍식, 1949), <신혼부부>(윤용규, 1955)를 제외한 나머지 11편은 모두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 공개된 작품들이다. 해당 작품은 극영화 <용광로>(민정식, 1949),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윤용규, 1952), <정찰병>(전동민, 1953) 3편, 기록영화 <수풍에프런공사>(1948), <영원한 친선>(1948), <38선>(1948), <남북련석회의>(1948) 4편, 그리고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 제작 <시보> 4편이다.

북한은 1947년 2월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가 창설된 이후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극영화 3편(<내 고향>, <용광로>,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주인규))을 제작하였고²⁾, 전쟁기간 중에는 극영화 5편(<소년빨치산>(윤용규, 1951), <또 다시 전선으로(일명, 조국을 위하여)>(천상인, 1952)>,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비행기 사냥군조>(1952), <정찰병>)을 제작하였다³⁾.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 <용광로>는 북한에서 제작한 두 번째 극영화로, 한국영상자료원이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기증받은 2,500여벌의 필름(대부분이 <국방뉴스>)을 확인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정찰병>은 전쟁기에 제작된 대표작으로, 2012년 한국영상자료원과 고려대 한국사연구소가 협력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복사해온 영상물 중에 있었으나 제명이 잘못 기재되어 존재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가, 전시 준비 과정에 영상을 재확인하면서 발견되었다.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1949)의 윤용규가 월북 후 전쟁 중에 제작한 두 번째 작품으로, 김일성이 해방 후 나온 작품 중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던 작품이다.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상연영화연구소로부터 일본에서 구입한 디지털 복사본을 기증받았다.

이로써 한국영상자료원은 북한이 해방 후부터 전쟁 기간까지 제작한 8편의 극영화 중에서, <내 고향>, <용광로>, <정찰병>,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총 4편을 보유하게 되었다. 동시대 남한에서 제작된 영화 필름의 대부분이 유실된 것과 달리, 북한에서 제작된 극영화 중 절반에 달하는 작품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북한은 영화를 인민들의 선전선동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영화를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를 창설하고 특히 기록영화와 뉴스영화 제작에 힘을 쏟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표2]에서 보듯이 1946~50년 사이 북한에서 최소 32편 이상의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대부분 북한정권의 정책과 활동상, 우월성을 홍보하고, 김일성 우상화, 노동자들의 애국적 열성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국군홍보관리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영상물을 재확인한 결과, [표2]의 기록영화 중 9편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한 <남북련석회의>, <38선>, <영원한 친선>, <수풍에프런공사> 4편은 북한에서 발행한 영화잡지 [영화예술] 3호(1949.9.)에서 우수 기록영화로 꼽고 있는 6편(<남북련석회의>, <38선>, <영원한 친선>, <민주건국>, <빛나는 승리>, <수풍에프런공사>)에 포함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2) 『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 1950)에 <전사의 수기>, <땅>이 1950년에 “촬영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있으나, 제작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1951년 5월 25일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 소장인 이석진의 인도로 촬영소의 영화예술인들이 동북영화제작소에 들어왔다. 그들은 동북영화촬영소의 설비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소년빨치산>(1951년 6월 27일 완성), <조국을 위하여>(1952년 12월 31일 완성),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비행기 사냥군조>(1952년 완성), <정찰병>(1953년 8월 완성), <해안>(1953년 11월 완성), <인민의 승리>(1953년 11월 대부분 완성) 극영화 7편, <식량전선>, <8.15>(1951년 12월 완성), <승리를 향하여>, <전선을 위하여>, <조선아동>(1952년 완성), <땅의 주인들>, <신천대중학살사건>, <조물주의>, <스탈린 사망>, <삼팔절>, <정전담판>, <승리를 경축하다> 기록영화 12편, 또한 시보영화 48편(1951년 10편, 1952년 17편, 1953년 21편)을 제작했다.” 胡昶, 『東影의日本人』, 長春市政協文史資料委員會, 2005.8, 140쪽.; 우유, “한국전쟁기 중국에서의 북한영화에 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 Vol.25 2016, 259쪽에서 재인용
“이 시기에 와서 우리 영화 예술인들이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찰병>을 비롯한 6편의 예술영화와 20여편의 기록영화 그리고 80여편의 시보영화를 제작하는 전례 없는 창작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화제작의 모든 조건들을 안전하게 마련해주시고 영화창조 사업 전반을 전시체제로 빨리 개편해주신 결과였다” 김룡봉, 『조선사회과학학술집-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73쪽.; 우유, 앞의 글, 251쪽에서 재인용

[표2] 1946~1950년 북한에서 제작된 극/기록 영화 목록⁴⁾

구분	제작편수	제명	내용/비고	KOFA 보유현황
1946	기록 2편	우리의 건설	(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제작) 3.1절 행사, 보통강 개수 공사, 5.1절 행사장면 수록	
		처음 맞이하는 민주선거	1946년 11월 3일 실시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과정 소개	○
1947	기록 1편	인민위원회	전3권 (1947.8.완성 / 공개) 1947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실황 국립영화촬영소가 건립된 후 공개한 최초의 기록영화	
1948	기록 11편	인민군대	전2권 (1948.3.완성 / 미공개) 인민군대 창설 열병식 모습	○
		승리의 오월	전1권 (1948.4.완성 / 공개) 1947년도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5.1절 기념행사 모습. 5.1절을 계기로 한 각지의 중산투쟁모습과 인민경제부흥발전에 공헌한 모범노동자들 표창식	
		승리의 민주선거	전3권 (1948.4. 완성 / 공개) 1946년 11월 3일 도, 시, 군 선거와 1947년 2월 25~6일 면 선거, 3월5일 리 선거 실황을 기록	
		자라나는 민주모습	전3권 (1948.4. 완성 / 공개) 해방 후 2년여 민주개혁으로 크게 성장한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각 부문의 발전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	
		8.15	전1권 (1948.4.완성 / 공개) 1947년 8.15를 경축하는 군중대회, 체육대회, 전람회와 산업부문의 생산투쟁모습을 기록	○
		홍광	전2권 (1948.5. 완성) 동북에서 공개 중국동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해방군의 투쟁모습을 기록	
		남북련석회의	전6권 (1948.6. 완성 / 공개) 1948년 4월 북한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된 남북련석회의를 소개. 남북의 정치정세에 대한 김일성, 박헌영의 보고 장면과 김구의 도착 및 연설 장면 등을 기록	○
		38선	전5권 (1948.9.완성 / 공개) 조선을 침략한 일제의 죄상을 폭로하고, 이어서 해방 후 남한과 북한의 정세를 소개. 남한은 미국의 조종 하에 추악한 만행이 벌어지고, 인민들은 헐벗고 있는 반면, 북한은 소련군의 주둔과 민주개혁을 통해 인민의 생활이 향상	○
		수풍에프런공사	전2권 (1948) 일제의 부실공사로 인해 홍수 때 에프런 일부가 부서진 수풍댐을 북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애국적 열성으로 재건, 완성시키는 모습을 기록	○
		영원한 친선	전5권 (1948.12. 완성 / 공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 소련 군대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열렬한 환영 모습과 소련 군대가 북한 각지에서 활약한 활동상이 소개되고, 최고인민회의의 요청을 승낙하여 북한에서 철수하는 소련 군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환송행사를 기록	○
		뇌염		
1949	극 2편	내 고향	강홍식 연출, 김승구 각본, 예술영화촬영소 제작 1930년대 주인공 관필이 항일유격전 활동과 지주와의 대립 투쟁을 벌이다 해방을 맞는 과정을 그림. 북한 영화의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된 작품	○
		용광로	민정식 연출, 김영근 각본 역경을 딛고 기술 개발에 힘써 일본에 의해 파괴된 황해제철소의 용광로를 복구한다는 내용. 북한 내부에서 노동계급의 형상을 구현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음	○ (결권)
1949	기록 9편	민주건국	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전체인민이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에 참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까지를 기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대회) ⁵⁾	1948년 9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대회 모습을 기록	○
		민청제3차대회	전3권 (1949.2. 완성 / 공개) 1948년 11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주청년동맹 제3차 대회 모습. 북한 각지에서 모인 민주청년동맹 대표들, 소련, 중국 파견 대표들, 북한정부요인들	○

4) [영화예술] 2호(1949.8) “국립영화촬영소 영화제작 카-드”;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1950.; 『북한의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진흥정책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영상물 및 KMDB 홈페이지(www.kmdb.or.kr)를 참고하여 재구성.

1950년 목록은 『조선영화사』, 『로동신문』, 『조선예술』로 보충

5) 제작 목록에는 없지만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기록영화로, 제명은 정확하지 않다.

1949	기록 9편	빛나는 승리	전4권 제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지방주권기관의 강화를 위한 1949년 3월 30일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 사업을 기록	
		친선의 노래	북한과 소련의 더욱 견고한 친선과 소비에트 문화의 광범위한 교류를 위한 「조쏘친선과 소비에트문화순간」을 기념 경축하여 제작한 장편 기록영화	
		승리의 민주건설		
		1949년의 5.1절		
		1949년의 8.15		
1950	극 1편	전국 제1차 체육절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	주인규 연출, 강홍식 각본	
		(전사의 수기)	(『조선중앙연감』에 “촬영 진행 중” 언급 있음	
	기록 9편	(땅)	(『조선중앙연감』에 “촬영 진행 중” 언급 있음	
		아세아 념맹대회	천상인	
		세계민청대회	천상인	
		1950년 2.8절	윤득찬	
		1950년 5.1절	최초의 충천연색영화	
		광산철도	리천섭	
		정의의 전쟁	천상인 각본, 연출	
		세계에 고함	천상인 각본, 연출	
		식량전선	민정식 각본, 연출	
		림산		

한편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는 1948년 2월부터 <조선시보>를 제작, 공개하였다. 1949년까지는 최소 33편 이상의 시보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고려대 한국사연구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복사 수집한 북한 관련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이들 33편 중 16편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참조).

그동안 한국영화사는 월북 영화인에 대한 배제와 기록 삭제, 필름 유실로 인해 반쪽짜리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영화사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던 북한영화에 대한 실증 자료의 공개를 통해, 해방기 영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표3】 1948~1949년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조선시보> 목록⁵⁾

제명	제작년도	내용	KOFA 보유현황	
			보유여부	KMBb 등록 제명
조선시보 제1호	1948. 2	1947년 5.1절 행사 국제민청대회에 참가한 민청대표귀국 소식 혁명자유가축학원 개원식 황해제철소 출선식	O	Korean Newsreel - 국제민청축전
조선시보 제2호	1948. 2	국제청년절기념행사 화전민 이주 화폐개혁 홍남인민공장 인민경제계획완수경축대회	O	Korean Newsreel, 02/02/1948
조선시보 제3호	1948. 3	국제직업연맹대표 북조선 방문 제3차 북조선인민회의 직총제3차중앙대회 임시헌법초안작성	O	조선시보(Korean Newsreel) 제3호
조선시보 제4호	1948. 6	제4차 북조선인민회의 인민학교의 하루	O	Korean Newsreel - 2개년 인민 경제계획
조선시보 제5호	1948.6.	38탁아소 순천중앙장 황해제철소제1해탄로 화입식	O	Korean Newsreel - 황해제철소 제1 해탄로 조업식
조선시보 제6호	1948.10.	선박 ‘신흥호’ 진수식 신학년도 준비사업	O	Korean Newsreel
조선시보 제7호	1948.10.	6대학 체육대회 체신경기대회 주물요업공장 도자기제조 청진방직공장	O	Korean Newsreel #7

조선시보 제8호	1948.10.	평남양장업의 발전 맥주제조공장 염전		
조선시보 제9호	1948.12.	태양고무기업소의 생산과정과 제품 교량건설 현장	O	Report from North Korea
조선시보 제10호	1949.1.	국제노동청년대회참가대표 귀환 평남도당부청사 준공식 제3기 소련 학생출발 김일성대학교사 준공식 혁명자유가족 학원 준공식		
조선시보 제11호	1949.1.	전국종합경기대회	O	EVERLASTING GOOD WILL - 조선시보 제11호
조선시보 제12호	1949.1.	중국동북지방 조선인대표 방북 자라나는 민주녀성 성진 제철소		
조선시보 제13호	1949.2.	한포교 준공식 재일조선인대표 방북 전화기제작소 쏘련장군에게 국기훈장 수여 노동당에서 소군에게 축기증정 쏘군환송 연회		
조선시보 제14호	1949.2	사동탄광 신년입강식 국기훈장 수여식 제2차국제여성대회대표 귀환보고 쏘련전권대사 방북 주녕하대사 출발		
조선시보 제15호				
조선시보 제16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대회 국제부녀절 38주년 기념대회 약진하는 서평양철도공장 교통운수일꾼 열성자 대회	O	조선시보 제16호
조선시보 제17호		원목생산 하반제조공업 농민동맹제4차대회		
조선시보 제18호	1949. 6.	신안천 열두삼천리벌의 농지관개공사 주남농지관개공 사와 통수식 평양경마대회 평양농장 (트락도르 경작 및 목축사업)		
조선시보 제19~20호				
조선시보 제21호		1949년 11월 3일 평남 강동군 승호리에서 개최된 김일성 동상 제막식 의거 임복한 함선 스미스 호와 승무원들 환영식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기념행사	O	조선시보(Korean Newsreel) 제21호
조선시보 제22~24호				
조선시보 제25호		조중 체신협정 체결 농민시장 체코를 방문하는 북한대표단 환송 교통성 간부들에 대한 표창	O	조선시보(Korean Newsreel) 25호
특보 제1호	1949.2.	쏘련군최후의 환송을 수록		
특보 제2호	1949.2.	제2차최고인민회의 인민군창립1주년기념행사 쏘련방문 정부대표단출발	O	Korean Newsreel - 인민군 창립 1주년 기념대회
특보 제3호	1949.4.	쏘련 방문 정부대표단 귀환 평화옹호전국대회 3월3십일선거 제1차 도시인민위원회		
특보 제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3차회의의 실행		
특보 제5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의거 임복한 소위 ‘국군’ 및 ‘해군선박’	O	Korean Newsreel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제1차 회의
특보 제6호	1949.6.	평양 모란봉에서 개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제1차 대회 실행	O	조선시보 특보 제6호
특보 제8호		1949년 9월 11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실시된 호림부대원들에 대한 재판 소식	O	인민의 원수 호림부대 공판

5) [영화예술] 2호(1949.8) “국립영화촬영소 영화제작 카-드” ;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사, 1950 ; KOFA 소장 영상물을 참고하여 재구성.
추가 목록이 있을 수 있음.

3. 발굴 영화 소개

미 공보부 제작 <시보> 제1호, 제2호, 제5호, 특보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한 1946년 제작 <시보> 1호, 2호, 5호, 특보 4편⁶⁾은 미군정 공보부가 제작한 뉴스영화이다. 해방기 당시 미군정은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스스로 제작주체가 되어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제작했다. 당시 신문자료에 따르면, 미군정 공보부 영화과는 1946년에 <시보> 1~15호를 발표하고, 1947년 12월까지 27호를 완성시켰다⁷⁾. 이번에 공개한 4편의 <시보>는 미 공보부가 1946년에 제작한 시보 중 일부로 파악된다. 특이한 점은 <시보> 특보의 부제가 ‘조선민중을 위하여’로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 공개한, 민중영화제작주식회사(이하 민영) 제작 <해방 뉴-쓰>의 부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시보> 1호, 5호, 특보의 오프닝 또는 엔딩에 등장하는 ‘범종을 타종’하는 타이틀 영상이 민영 제작 <해방 뉴-쓰>에 등장하는 ‘범종 타종’ 영상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시보>의 일부 영상이 민중영화제작주식회사가 <해방 뉴-쓰>를 소스로 하여 편집 제작한 다큐멘터리 <해방조선을 가다>(1947)의 일부 영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뉴-쓰>의 제작주체와 실체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영일, 한상언, 조혜정 등에 따르면 <해방 뉴-쓰>는 조선영화건설본부(이하 영건)가 제작 개시한 뉴스영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⁸⁾. 해방이 되자 조선영화사(이하 조영)의 조선영화인들은 조영의 창고에서 카메라를 꺼내 해방의 감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조영이 미군정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자, 조영 영화인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던 영건은 미군정의 제작 허가를 얻어, 촬영과 편집, 녹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방 뉴-쓰> 1보, 2보, 특보1, 특보2는 1945년 10월 21일에 동시에 최초 공개되었다⁹⁾. 영건은 <해방 뉴-쓰> 3보 제작을 끝으로, 그 역할을 영화동맹에게 넘겼고, 이후 영화동맹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해방 뉴-쓰>를 상영한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영화동맹에서 <해방 뉴-쓰>를 지속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혜정은 <해방 뉴-쓰>가 언제까지 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3보까지 상영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1947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고, 한상언은 1948년판 『조선연감』을 근거로 1947년까지 총 14편이 제작되었다고 하였다¹⁰⁾. 그런데 영화동맹의 <해방 뉴-쓰>와 달리, 조선영화사가 동일제목인 <해방 뉴-쓰>를 새로 제작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실제로 극장 광고에 등장한 <해방 뉴-쓰>의 제작자로 조선영화사가 표기된 바가 있었다¹¹⁾. 한편 한국영상자료원이 2005년에 발굴 공개한, 유일하게 실물로 확인이 가능한 <해방 뉴-쓰> 특보, 특2호, 특3호, 00호 4개 필름에는 ‘민중영화제작주식회사’가 제작사로 기재되어 있다¹²⁾. 민영은 재일본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영화사로, <해방 뉴-쓰>를 가져와 2권 분량으로 재편집한 다큐멘터리 <해방조선을 가다>(1947)를 제작한 주체이기도 하다¹³⁾.

6) 본 도록 18쪽 참고.

7) 『예술통신』 1946.12.3. “군정 영화과 1년간 작품”
조혜정, 「미군정기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7, 16쪽 재인용.

8)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215쪽.
조혜정, “미군정기 뉴스영화의 관점과 이념적 기반 연구”, 『해방과 전쟁 사이의 한국영화』, 박이정, 2017, 75쪽.
한상언, 『해방 공간의 영화-영화인』, 이론과 실천, 2013, 55쪽.

9) 한상언, 앞의 글, 55쪽.

10) 조혜정, 앞의 글, 2017, 77쪽.
한상언, “다큐멘터리 <해방조선을 가다> 연구”, 『현대영화연구 Vol.4』, 2007, 222쪽.

11) 『예술통신』 1946.11.20.

12) 본 도록 17쪽 참고.

13) 한상언, 앞의 글, 2007, 218쪽.

이로써 <해방 뉴-쓰>는 동일한 제목으로 영화동맹, 조영, 민영, 최소한 3개의 제작 주체가 존재한 셈이 된다. 민영이 제작한 1947년 다큐멘터리 <해방조선을 가다>의 논조가 다소 좌익 성향을 띠고 있음에 반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1946년 민영 제작 <해방 뉴-쓰>가 미군정에 호의적이거나 미군정의 시각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조혜정은 민영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단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있을 수 있고, <해방조선을 가다>의 민영과 <해방 뉴-쓰>의 민영이 별개의 회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¹⁴⁾

조혜정은 커다란 범종을 타종하는 이미지 위에 시그널 음악이 흐르고 그 위에 ‘조선민중을 위하여’라는 자막이 뜨는 형태가 <해방 뉴-쓰> 고유의 타이틀 영상이라고 보았다.¹⁵⁾ 그렇다면 미공보부 제작 <시보> 3편(나머지 1편은 오프닝과 엔딩부분이 남아있지 않음)에 동일한 타이틀 영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영 제작 다큐멘터리 <해방조선을 가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해방 후부터 1945년 10월 모스크바삼상회의까지의 기간을 해방, 소련진주, 미군진주, 모스크바삼상회의 순서로 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문화행사, 정치단체와 대표자 소개, 항일기념일 행사, 민주주의민족전선,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이중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성립식” 일부 영상과 일치하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영상의 일부와 일치한다.

미공보부 제작 <시보>의 발견으로 <해방 뉴-쓰>의 제작주체와 실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영화동맹의 <해방 뉴-쓰>와 조영의 <해방 뉴-쓰>, 민영의 <해방 뉴-쓰>는 서로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미공보부 <시보>와 <해방 뉴-쓰>는 전혀 별개의 것일까? 아니면 공보부 <시보> 역시 <해방 뉴-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 <해방 뉴-쓰>를 촬영, 제작할 수 있는 기재를 보유한 조영의 관리감독 주체였던 미공보부가 영화동맹, 조영, 민영의 <해방 뉴-쓰> 제작에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까? 미공보부가 직접 제작했거나 공보부의 지원으로 제작된 <해방 뉴-쓰>에는 모두 범종 타종 타이틀 영상을 삽입한 것일까? 조영이 촬영을 담당하고, 조영이 촬영한 소스를 활용하여, 영화동맹, 민영, 조영, 미공보부 각자가 그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뉴스영화를 제작한 것일까?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방 뉴-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공보부의 역할과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서 <해방 뉴-쓰>를 비롯한 해방기에 대한 기록의 역사가 더욱 선명해지길 바란다.

14) 조혜정, 앞의 글, 2017, 80쪽.

15) 조혜정, 앞의 글, 2017, 81쪽.

16) 한상언, 앞의 글, 2007, 233쪽.

민족의 절규(1948)

지도	민주의원공보부
제작사	국민문화영화사
제작	안성호
촬영	한형모
구성/해설	안경호
총지휘	강일매

단일민족을 분열시킨 삼팔선의 비극을 언급하며, 하루에도 수천명씩 고향산천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내려오는 동포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탁통치안에 대한 군중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 모습과 이승만 박사의 외교 활동, 1947년 2월 14일 개최된 비상국민회의 모습을 전하고, 이어 1947년 2월 15일 김구를 중심으로 한 반탁독립결기대회 광경과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반탁운동들, 이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소개한다. 이어 독립선언 33인 중 한명인 권동진 선생의 영결식 장면이 등장하고, 오세창,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이 참석한 삼일기미독립선언기념식 행사 모습과 군중들의 만세 장면, 남대문 시가지에서 벌어진 좌우 충돌 모습이 소개된다. 후반부에 이르면 조선독립 문제와 원조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을 짧게 전한 뒤, 이승만 박사의 외교 성공 축하 환영식을 소개한다.

이 영화는 신탁통치안에 대한 반대 운동과 조선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리고 있는 기록영화로, 후반부에 이승만 박사 외교 성공 환영식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비중있게 다룬다. 이승만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강일매의 지원 하에 제작되었고,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의도가 영화 전반에 걸쳐 강하게 드러나 있다. 미군정 공보부 조차 지나치게 우익편향적이고, 이승만을 과도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열 보류 및 상영 중지시킨 바 있었으나, 이후에 다시 검열 통과되어 전국에서 상영되었다.¹⁷⁾

17) 한상언, "다큐멘터리 <민족의 절규>연구", 『현대영화연구 Vol.22』, 2015.



용광로(1949)

감독	민정식
각본	김영근
조연출	리춘섭, 김운몽, 박희연
촬영	최순홍
미술	윤상렬
조명	송인호

일본에 의해 파괴된 황해제철소의 용광로를 복구하기 위해 주인공 룡수(박학)는 내화벽돌 개발을 위해 힘쓴다. 공장 기술자들은 수입하는 것이 낫다며 룡수의 말을 무시하고, 석만(심영) 등은 방해공작을 펼친다. 룡수는 조수인 혜영(안상현)과 밤을 세우며 내화벽돌 연구에 애쓰지만, 룡수의 아내 용연(문예봉)은 룡수와 혜영의 관계를 의심해 집을 나간다. 룡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아내 용연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글을 모르는 용연은 편지를 읽지 못하고 계속 오해한다. 룡수의 연구는 해방군들에 의해 위기를 맞지만, 결국 내화벽돌 개발에 성공하고, 용연과의 오해도 해소된다. 용연은 한글 공부를 시작한다.

용광로는 북한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극영화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이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기증받은 2,500여벌의 필름(대부분이 <국방뉴스>) 속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결권으로 38분 분량만 남아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DVD로 복사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녹음	감상현
현상	김창수
편집	리죽설
출연	박 학, 문예봉, 안상현, 심 영, 유 칠, 최국인, 이창성, 김두선, 심 양, 리재현, 홍형두
상영시간	38분(결권)

필름 원본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1946년 12월부터 북한주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고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건국사상총동원'을 전개하였다. <용광로>는 건국사상총동원 운동에서 주장하는 '조국 건설에 나서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투지'를 주인공 룡수(박학)를 통해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글을 모르는 용연(문예봉)을 통해 당시 대두되던 문맹퇴치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 김영근이 황해제철소를 취재하여 용광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민정식이 연출을 맡아 완성했다. 당시 북한의 시대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박학, 문예봉, 심영, 이재현 등 월북 영화인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점에서 영화사 사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용광로>를 연출한 민정식은 대구 출신 월북 영화인으로, 남한에서 <태양의 거리> 등을 감독한 민경식의 동생이다. 한상언에 따르면 해방 직후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김순남이 <용광로>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한다.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감독	윤용규
각본	윤두헌
촬영	박경원
미술	윤상렬
음악	정진옥
녹음	리재식
조명	최승복
특기	최영수
편집	박혜순
조연출	림연수
조촬영	한창해
제작	리서영, 김 영
출연	유경애, 심 영, 김동규, 리재현, 최운봉, 남승민, 김달연, 독은기, 김은배, 권혁채, 신세민, 문정복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던 북한인민들은 8.15 해방 후 땅을 나누어받자 의욕적으로 개간을 하며 힘차게 조국을 건설해나간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후 마을을 점령한 미군은 곡식을 약탈하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 마을주민들은 미군에 맞서 고향과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고, 마침내 적을 섬멸한다. 이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이전보다 더 훌륭히 건설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윤용규가 월북 후 <소년 빨치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영화이다. <내 고향>, <소년 빨치산>, <또 다시 전선으로>의 뒤를 이어, 북한인민의 혁명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일성이 해방 후 나온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빨치산을 이끄는 주인공이 여성(유경애)인 점도 눈길을 끈다.

정찰병(1953)



감독	전동민
시나리오	한상운
촬영	오웅탁
장치미술	김혜일
작곡	김린옥
록음	리재식
조연출	손무표
조촬영	윤득송
편집	박혜순
특기미술	허 연
특기촬영	리정빈
조명	주종근
분장	김성병
군사컨설턴트	오룡한
제작	리정필
출연	박학, 최운봉, 광현, 김세영, 강봉원, 김강, 신세민, 김은배, 오영도, 강효선, 로동휘, 문병운, 전운봉, 리재현, 김달연, 문정복, 김연실, 손병옥, 한계성, 김성란, 심영, 유원준, 남승민, 최군, 조백령, 리지찬, 조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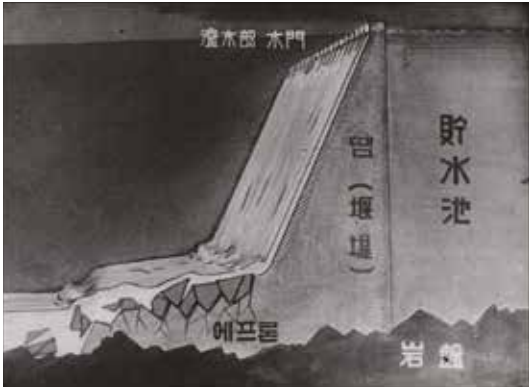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부산리 부근의 전선에 적의 방어 상태 정찰 임무를 띠고 병사 리학철(박학)과 그 부하들이 투입된다. 미군 로버트 대위를 생포하고, 적진에 잠입하여 적의 작전도를 탈취하는 등 대범한 정찰 활동을 벌이고, 마침내 적군의 포진지 습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리학철이라는 인물의 용감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영화 전반에 걸쳐 비중있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성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 조국과 인민을 향한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후반부에 리학철이 부대원들에게 김일성의 8.15 명령서를 낭독하며 결의를 다지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전쟁기 제작된 북한영화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북한군의 영웅성과 애국주의를 주제로 하여 주목받았던 <또 다시 전선으로>보다 더 강렬한 사상 예술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박학이 <용광로>에 이어 <정찰병>에서도 주연을 맡아 열연하였다.

수풍에프런공사(1948)

제작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
연출	천상인



일제강점기 때 건설되었다가 불완전한 설계와 날림식 공사로 인해 1946년 홍수 때 부서진 수풍댐을 해방 이후 북한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애국적 열성으로 재건, 완성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기록영화이다. <용광로>와 함께 한국영상자료원이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기증 받은 2,500여벌의 필름 속에서 발견되었다.

압록강 연안의 장엄한 자연미, 수풍발전소의 웅장한 외관을 시작으로, 수풍댐 보수공사의 구체적인 과정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소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과 중앙정부 김책 부수상이 현장을 시찰하며 격려하는 장면도 담고 있다. 보수공사가 완성되고 수풍댐 문이 열리자 폭포 같은 물줄기가 웅장하게 쏟아지고, 함께 지켜보던 노동자 기술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한다.

영원한 친선

제작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
----	-------------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이 북한 각지에서 활약한 활동상을 자세히 소개한 뒤, 1948년 12월부로 북한 지역에서 일부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철수하는 소련군에 대한 각종 환송식 행사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기록 영화이다. 38탁아소 아이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소련군 모습, 전국 각지에서 감사메시지에 수를 놓거나 선물 포장 등 성의 표시하는 장면들, 김일성이 소련군에게 기념장을 전달하는 모습 등이 소개되고, 마침내 소련군대는 대규모 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스탈린 거리를 행진한 뒤, 기차를 타고 떠난다.

행사장에 참여한 북한 인민들의 규모를 볼 때 북한 정부는 소련군 철수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군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환송하는 문예봉의 모습도 보인다.

해방 전후 한국영화사의 복원과 북한영화라는 문제

한상언[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1. 발굴 혹은 발견의 한국영화사

1950년 3월, 부산경찰서에서는 부산 부민관에서 상영 예정이던 영화 <상춘>의 상영을 금지했다. <상춘>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서항석이 이끌던 조선예흥사에서 제작한 영화로 개봉 당시 제목은 <안해의 윤리>였다. 김영화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일제의 검열 과정에서 1권 분량의 필름이 삭제 당한 적이 있었다. 해방 후 이 영화의 제작자 서항석은 삭제 당했던 필름을 이어 붙여 일종의 완성판을 만들었다. 1949년 6월 제목을 <상춘>이라 바꾼 이 영화는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고 이어 지역과 극장을 옮겨가며 상영되던 중 부산 상영을 앞두고 부산경찰서에서 이 필름을 압수한 것이다. 이 영화에 월북한 영화인 나웅이 출연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화배우의 월북을 이유로 상영 중이던 영화의 필름을 압수한 것은 <상춘>이 두 번째였다. 1948년 12월 부산에서 상영 중이던 <해연> 역시 출연배우들의 월북을 이유로 영화 상영이 중지된 적이 있었다. <해연>의 경우 해방 후인 1948년 제작된 영화였기에 월북영화인의 출연을 경찰이 문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제작되어 이미 여러 곳에서 상영된 적이 있는 필름의 상영을 금지한 것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영화도 언제든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25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51년 10월, 남한 내에서 월북작가, 예술인들의 저작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국의 조치가 발표되었다. 월북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금지 조치는 영화 상영에도 그대로 준용되었다. 부산경찰서에 의해 이루어진 <해연>과 <상춘>의 상영 금지 처분과 필름 압수와 같은 사건은 이제는 부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월북영화인이 등장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영화는 남한에서는 더 이상 상영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제작된 영화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족영화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아리랑>(1926)조차 남한에서는 상영될 수 없었다. 주인공, 김태진, 이규설 등 월북영화인들이 출연한 작품이었기에 그렇다.

월북영화인의 등장 여부는 영화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였다. 불온함을 이유로 압수되고 폐기되어 사라지지 않으려면 월북영화인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다. 1946년 제작된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는 월북영화인 독은기와 박학을 화면 속에서 삭제해버리거나 다른 인물로 대체하는 식의 개작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유만세>는 뒷부분이 유실되고 심각한 개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영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로 공인되고 있다.

월북영화인이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한국영화사에 있어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이름이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에는 월북영화인들의 활동 내역을 기록하지는 못할망정 기억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영화도 사라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기록되지 못한 역사는 더 이상 기억될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화역사는 반공체제하에서 규정된 반쪽 역사만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나운규-이규환-최인규로 이어지는 리얼리즘의 정통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계보에는 월북영화인들이 설자리가 없었다. 나운규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고 한때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주인규, 김태진 등의 활동은 축소되었고 이규환의 영화에 출연했던 김연실과 문예봉, 독은기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은 언급될 수 없는 이름이었으며 우익 영화계의 주요 인물인 최인규는 친일영화인에서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어 낸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이후 사라졌던 영화들이 발굴되기 시작하고 월북영화인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지자 한국영화사 연구는 켜켜이 쌓인 시간의 지층에 파묻혀 있던 과거를 발굴하거나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되어 이해되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등 일대 전환을 맞았다. 특히 해외 아카이브에서 발굴된 필름들과 국내 소장자들이 공개한 영화들은 사라졌던 과거의 복원이자 잊어야 했던 인물들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는 계기였다.

<미몽>의 문예봉이나 <청춘의 십자로>의 김연실과 같은 한국 영화의 주인공들은 물론 일제 말기 군국주의 선전영화에서 황군의 역할을 수행했던 독은기, 남승민, 최운봉 등의 월북영화인들은 새롭게 발굴된 영화를 통해 그 존재감을 뽐냈다. 한국영화사 연구자들은 새롭게 발굴된 영화들을 토대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하였으며 한국 영화의 해방 전 역사는 질적으로 큰 수확을 일구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활약하던 영화인 중, 북으로 간 영화인들의 행적은 해방과 함께 만나게 되는 거대한 단절로 인해 미궁으로 빠지기 일쑤였다. 남한에서 필름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주된 이유인 영화인의 월북과 그들의 북한에서의 활동이 연구되지 않는 한,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는 반쪽의 영화사로 남을 뿐, 온전한 민족의 영화사로 복원될 수 없다. 북한 영화는 이제 우리 영화사에 추가해야 할 대상이다.

2. 미지의 영역으로 남은 북한영화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과 한상언영화연구소가 함께 주최하는 전시 “흔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해방공간의 영화인들”에서는 해방 직후 제작된 남한 영화는 물론 초기 북한 영화들도 발굴하여 상영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들 영화들과 남북을 넘나들며 활동한 해방공간의 영화인들의 행적을 통해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남북한 영화의 토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전시의 취지는 그간 우리 영화사에서 민감하게 다뤄졌으면서도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인해 선불리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분단 75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발굴과 발견이라는 한국영화사 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북한 영화에 관한 남한 학계의 연구를 보면 아직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오랫동안 그들이 만든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위험하게 여겨졌기에 남한의 아카이브에 북한영화에 관한 역사적 서술을 뒷받침 해 줄만한 자료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같은 국공립 아카이브에 수집되어 있는 북한자료들은 1970년대 이후 발간된 문헌들이 주를 이룬다. 북한 영화연구의 기본적 재료가 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간한 《조선영화》조차 제대로 비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들은 1970년대 이후 발간된 자료들을 연구에 인용하는 형편이다. 이 자료들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결부한 인적 청산으로 인해 숙청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달라진 역사적 평가와 이에 따른 계속된 역사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북한 영화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남한에서 북한영화 연구를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영화에 관한 중요한 원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북한영화연구가 보다 성숙해 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작업 외에 북한 내에서 삭제되고 은폐되고 수정된 초기 북한 영화와 북한 영화인의 모습을 복원한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북한 영화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권력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들은 북한의 공식기록에서 지워져버렸거나 축소, 수정되어 서술되는 상황이다. 북한 영화계에서 아직까지 복권되지 못한 여러 명의 영화인들 중 초대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 총장을 역임한 영화배우 주인공규와 전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총장으로 재직했던 시나리오 작가 추민 등은 한국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인물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영화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1957년 무렵 정치적 이유로 숙청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문헌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다. 삭제되어버린 이들의 이름은 언젠가 복원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쓴 윤두헌과 조소합작영화 <형제>의 시나리오를 쓴 서만일 등도 숙청되어 북한문헌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북한 필름들은 한국전쟁 시기 국군과 미군이 노획했거나 외국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발굴한 것이다. 이들 영화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들과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북한에서 이루어진 영화 필름에 대한 삭제와 수정의 내역들을 살펴 볼 수 있다.

1950년 작 <용광로>나 전쟁기에 제작된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정찰병> 등의 필름은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영화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영화수출입사를 통해 영화를 외부에 유통하고 있다. 조선영화수출입사의 카탈로그(『조선의 영화예술』, 조선영화수출입사, 2016.)에는 이번 전시에서 발굴해 상영하는 영화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작품인 것이다.

<용광로>와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정찰병> 등의 영화는 『조선영화문학선집 1』(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에 시나리오가 실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용광로>의 작가 김영근과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의 작가 윤두현의 이름은 삭제되었고 이들의 이름 대신 이들 작품이 집체작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용광로>의 경우 『조선영화문학선집 1』에 실린 시나리오와 이번 에 공개되는 1950년에 제작된 필름이 그 내용에 있어 크게 다르다. 다른 두 편의 영화 역시 일부 대사가 수정되는 등 시나리오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 영화 완성 후 제기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초의 시나리오를 훗날 크게 수정하였고 현재 수정된 시나리오가 『조선영화문학선집 1』에 수록되었기에 그렇다. 북한에 보관되어 있는 이들 필름 역시 바뀐 시나리오에 맞춰 수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녹음을 새롭게 하여 기존에 삽입된 음악을 새롭게 창작한 음악으로 바꾸고 일부 장면을 수정, 삭제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예술영화 <내 고향>의 전례를 보았을 때 <용광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들 역시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영화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초기 북한 영화를 되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폭압적인 정치권력으로 인해 역사 속에 묻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의 부활과도 같은 것으로 한국영화사의 지평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대결과 경쟁의 남북한 영화

분단과 전쟁을 거치며 남북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대결을 펼쳤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체제의 우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오락물이자 정치적 선전 매체이기도 한 영화는 남북 사이의 경쟁을 시각화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역시 남북 사이의 체제 대결에 빠질 수 없었다.

1950년대 칼라영화와 광폭영화와 같은 최첨단의 영화 기술은 남북 공히 상대 보다 먼저 선취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였다. 1956년 북한에서는 최승희의 무용극 <사도성 이야기>를 정준채가 칼라영화로 만들어 홍콩에 수출하였다. 이즈음 남한의 영화인들은 홍콩과 합작영화를 만들기 위해 홍콩을 오가며 <사도성 이야기>의 소식을 접했다. 남한에서는 북한 영화가 상영되는 홍콩에서 북한 영화 보다 뛰어난 수준의 칼라영화를 만들어 북한 영화와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홍합작영화 <이국정원>이 일본의 칼라영화 기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이처럼 칼라기술을 배경으로 <사도성 이야기>와 <이국정원>이 기술적 성취를 겨루던 홍콩의 극장가는 남북의 영화가 경쟁을 펼치는 대표적 무대였다.

칼라기술과 광폭영화기술을 선취하기 위한 경쟁은 흥미롭게도 우리의 대표적 고전 <춘향전>을 남북이 경쟁적으로 영화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남한에서는 1955년 제작된 이규환의 <춘향전>이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국산칼라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1958년 안종화의 <춘향전>이 제작되었다. 1961년에는 신상옥과 홍성기가 <성춘향>과 <춘향전>이라는 두 편의 서로 다른 <춘향전>을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제작했다. 북한에서는 1959년 윤용규가 칼라 <춘향전>을 만들었다.

홍콩처럼 남북한 영화가 경쟁을 펼치는 무대는 많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화제는 남북의 영화가 소개

되는 중요한 장소였고 이들 영화제를 통해 기술적 혹은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는 것이 남북대결에 있어서 보다 중요했다. 북한에서 전쟁 중 제작된 윤용규의 <소년 빨치산>이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 출품되어 “자유를 위한 투쟁상”을 수상함으로써 북한 영화 최초로 그 예술적 성취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9년 모스크바 영화제가 신설되었을 때 출품된 윤용규의 <춘향전>은 촬영상을 수여 받았다.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 개최된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북한 영화는 남한 영화의 주된 비교 대상이었다. 남한 영화 역시 국제영화제에 출품하여 그 수준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영화제는 남한 영화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창구였다. 1957년 이병일이 연출한 <시집가는 날>이 희극상을 수상한 이후 남한은 이 영화제의 주요한 참가국이 되었으며 다수의 수상작과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1961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되어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일구어 냈다. 이처럼 기술적 성취와 예술성 인정을 누가 먼저 이루어 내는가의 문제는 남북한이 영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경쟁하던 부분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영화는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남북한 지도자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활동 내역은 정치적으로는 각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민감한 문제였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과 김일성 모두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이중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은 보다 상징적인 존재였다. 반면 김일성은 젊은 나이와 다수의 정파가 세력을 분점하고 있던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 성과를 보다 과장하고 강조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에 관한 내용을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에서부터 영화 속에 녹여 내었으며 한설야의 소설 『력사』를 토대로 한 <백두산이 보인다>와 극작가 송영이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 전적지를 답사 후 그 내용을 취재한 『어데서나

백두산이 보인다』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한 <애국자>나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같은 영화들을 통해 195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네 번째 대통령에 출마한 고령의 이승만을 홍보하기 위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이승만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승만의 노쇠한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해방과 전쟁 그리고 1950년대의 전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남북의 영화는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며 마치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한 운동선수 마냥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지속했다.

남한 영화나 북한 영화는 같은 시기 서로의 영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영화를 우리의 영화사에서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사실 남북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영화 역사는 영화사 서술의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 영화사 서술에 있어서 지금처럼 남한 영화 혹은 북한 영화로 구분하여 분단체제하에 단절을 인정하고 서로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영화사를 서술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시야를 한반도로 확대하여 민족의 영화사라는 시각에서 해방 이후 영화사를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살펴봐야 한다.

그간 북한이라는 지역은 경쟁과 대결의 대상일 뿐 우리의 품 안에 넣을 수도 넣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 영화사 서술에 있어서도 한국영화사는 남한만의 영화사로 한정하여 서술됨으로써 한반도 북쪽에서 만들어 온 영화의 역사는 우리의 영화 역사 안에서 서술될 수 없었다. 이러한 의도적 단절과 배제는 보다 풍성할 수 있는 한국 영화의 풍경들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통해 원하는 식으로 재단해 보여주었던 그간의 역사 서술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제는 남북 사이에 지속되어 온 경쟁과 대결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품에 품어 보다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거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복원하여 그간의 남북한의 영화사를 협소하게 만들었던 지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성한 역사 서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평화 공존 시대, 남북 영화교류

남한에서는 영화인의 월북을 이유로 들어 일제강점기 영화들의 상영을 금지시켰다. 상영될 수 없는 영화는 하나 둘 폐기되어 1974년 필름 보관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일제강점기 영화가 한편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일제강점기 필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률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정상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군으로 참전하여 해방 후 북한지역 문화예술계의 지도적 인물로 활동했다. 하지만 종파분쟁기 때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중 당적 정리를 요구받았을 때 소련으로 돌아가 여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가 남긴 회고록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에는 해방 후 북한에서 <아리랑>과 <임자 없는 나룻배>(1932)와 같은 영화들을 관람하였다는 회고가 실려 있다.

정상진이 북한에서 본 이들 영화필름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을까? 북한의 영화 관련 문헌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제작된 영화들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된 미군의 폭격으로 필름이 보관되었던 창고나 극장들이 파괴되면서 그때까지 북한지역에 남아 있던 필름들 역시 모조리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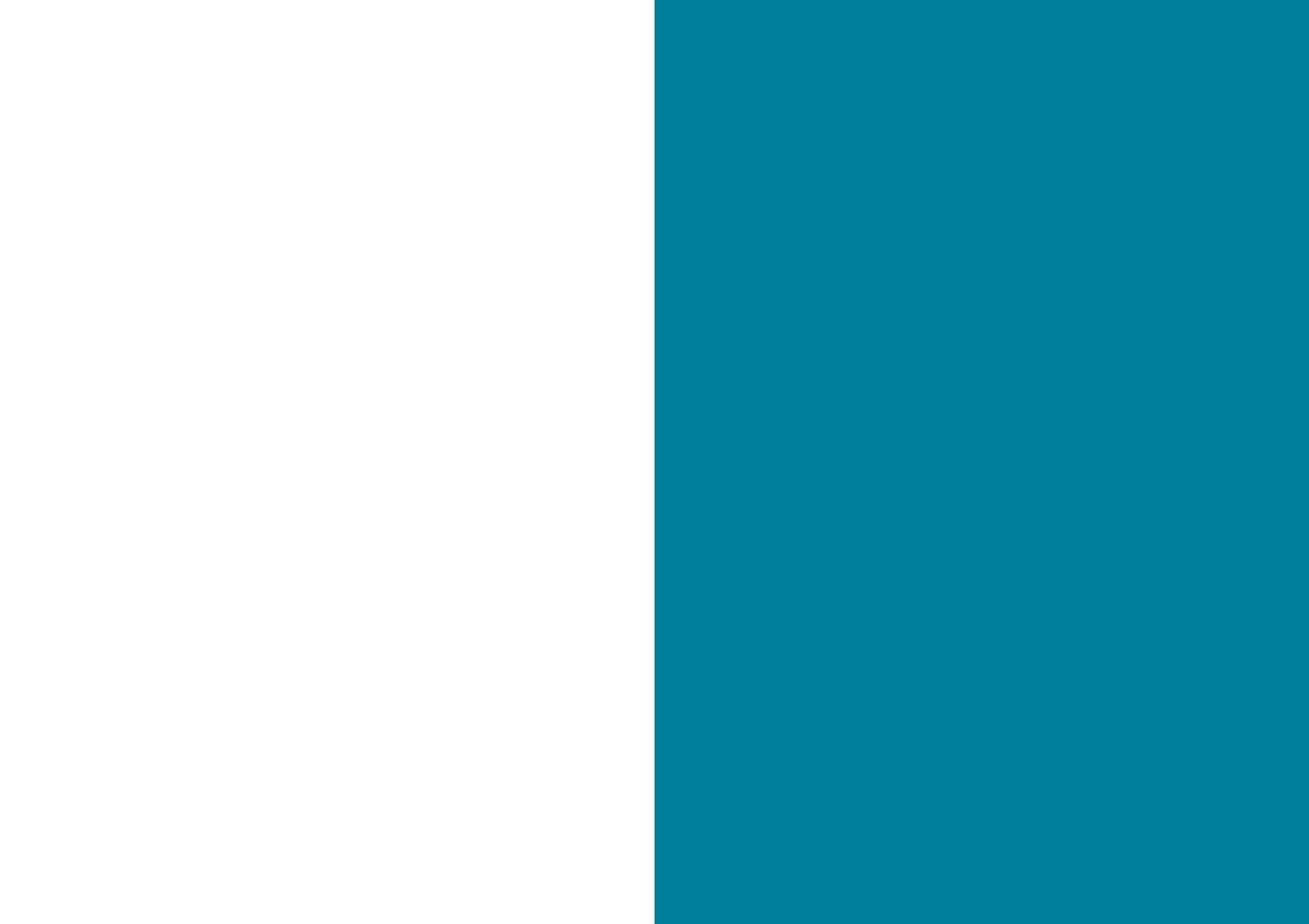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국보적 필름들이 남과 북 양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이렇게 사라진 필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 외국의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필름이 우연찮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들 영화들을 관람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자료를 한곳에 두지 않고 여러 부의 복본을 만들어 분산, 보관하였기에 그렇다. 6.25전쟁으로 우리의 중요한 영화필름이 모조리 사라졌던 것처럼 일순간에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남북한 영화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필름들

도 복본을 만들어 분산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필름 교환 사업은 남북의 중요한 협력 사업으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필름 교환 사업은 우선 남북의 필름아카이브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조건 없이 남북의 아카이브에 보관된 가장 오래된 필름부터 순차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혹여 남북이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필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그런 유의 영화를 고르는데 있어 발생하는 시각의 차이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영화라는 조건들로 인해 언제든 사업은 중지될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자면 우선순위는 남한의 반공영화와 북한의 체제 선전 영화 등을 포함하여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오래된 순서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북한자료들을 취급, 관리하는 특수자료취급인가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자료는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 관련 자료들을 특수자료로 구분하고 특수자료취급인가를 취득한 아카이브에서 허가받은 연구자만 이용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료 이용을 원하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만 가중할 뿐이다.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때 남북한의 체제대결이라는 냉전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특수자료취급인가 제도는 더 이상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써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영화를 온전히 우리 품에 품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혼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

-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 -

2020.7.7.~2020.10.18.

한국영화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를 만든 사람들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한상언영화연구소
총괄	주진숙, 김청수
전시총괄	정종화
전시기획	한상언, 조소연
전시진행	조소연
전시디자인	(주)디자인마론
도록디자인	원투비 디자인스튜디오
도와주신 분	엄동섭

※ 전시에 소개된 <정찰병>, <남북련석회의>, <38선>, <엘바강의 해후>, <조선시보>4편, <시보>4편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영상자료입니다.

흔돈의 시간 엮갈린 행로

- 해방 공간의 영화인들 -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Korean Film Museum
한국영화박물관



한상연영화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